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자기애성향과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 및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정 속

자기애성향과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 및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정 속

인 준 서

김정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김 주 력 인

심사위원 이 명 희 인

심사위원 신 규 옥 인

심사위원 장 민 정 인

심사위원 김 경 희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기애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미(美)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과시하려 한다. 외모에 대한 집착은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중독증 같은 극단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과 뷰티관리 및 헤어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현적·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와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현대인들의 바람직한 뷰티관리 및 헤어행동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외현적 자기애성향, 내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였으며, 측정방법은 5점 Likert 척도, 선택형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지역의 2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기애성향은 ‘외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의 2개 요인을 사용하였고, 신체존중감은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 총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뷰티관리는 ‘메이크업연출’, ‘성형관리’,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의 5개 요인을, 헤어행동은 ‘헤어대인지향성’, ‘헤어개성’, ‘헤어동조성’, ‘헤어일관성’의 4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개인소득을 조사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은 외모관리비, 운동, 음주, 흡연,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12~2014년 1월이었으며, 피험자는 총 641명으로 20대 156명, 30대 161명, 40대 162명, 50~60대가 162명 이었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요인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비교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여부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에성향의 차이에서 미혼 여성들이 기혼 여성들보다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30대가 내현적 성향이 가장 높았고, 외현적 자기에성향은 20대가 가장 높았다. 외현적 자기에성향은 학력이 높을수록, 외모관리비가 많을수록, 운동, 음주,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여부에 따른 신체존중감은 직업이 없는 여성보다 직업이 있는 여성들의 체기능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이거나 대학원 졸업인 여성들의 체기능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존중감은 월평균 개인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여성들의 외모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운동여부에 따라서는 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총 신체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음주를 하는 여성들의 체기능존중감이 음주를 하지 않는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령에 따른 뷰티관리는 성형관리, 헤어연출, 몸매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형관리는 30대 이상이 비교적 높았으며, 헤어연출, 몸매관리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뷰티관리는 미혼여성보다 기혼여성의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른 뷰티관리는 메이크업연출에서 대졸여성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주, 흡연, 운동,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은 하지 않는 여성보다 뷰티관리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연령에 따른 헤어행동은 헤어동조성, 헤어일관성, 총 헤어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총 헤어행동의 평균을 비교할 때 여성들은 헤어대인지향성의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 헤어일관성,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동여부에 따라서는 헤어개성과 헤어동조성, 총 헤어행동이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헤어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여부에 따른 헤어행동은 음주를 하지 않는 여성보다는 음주를 하는 여성들의 헤어대인지향성, 헤어개성, 총 헤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는 흡연을 하는 여성들의 헤어개성, 헤어동조성, 총 헤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뷰티관리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메이크업연출에는 운동여부, 음주여부, 외모관리비,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성형관리에는 결혼여부, 흡연여부, 외모관리비,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기혼여성이거나 흡연을 하는 여성일수록 성형관리 정도가 높았다. 헤어연출에는 연령, 외모관리비, 다이어트,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피부관리에는 외모관리비, 다이어트, 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몸매관리에는 연령, 흡연여부, 운동여부, 외모관리비, 다이어트,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여섯째, 헤어행동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헤어대인지향성에는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이 의미있는 영향을 주어, 이들 변인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대인지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개성에는 외모관리비, 연령, 학력(-), 흡연여부,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헤어동조성에는 결혼여부, 외모관리비, 운동여부,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기혼 여성일수록 헤어동조성이 높았다. 헤어일관성에는 연령, 외현적 자기애성향, 체기능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총 뷰티관리는 외모관리비가 높고, 다이어트를 하고, 기혼자이며, 흡연을 하고, 개인소득,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높을수록 향상되었다. 총 헤어행동은 연령이 높고, 외모관리비가 높고, 흡연을 하고, 내·외현적 자기애성향과 외모존중감이 높고, 체중만족감이 낮을수

록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치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자기에 성향과 신체존중감은 뷰티관리 및 헤어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태도를 지닌 현대인의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에 따른 뷰티관리와 헤어행동에 대한 본 연구가 뷰티산업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뷰티관리와 헤어행동을 통해 현대인의 부정적 자기에성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과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더욱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2. 연구의 목적	5
II. 이론적 배경	6
1. 자기애	6
2. 신체존중감	15
3. 뷰티관리	21
4. 헤어행동	27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32
1. 연구문제	32
2. 용어의 정의	34
3. 측정도구	37
4.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40
5. 자료분석	43
IV. 연구결과 및 논의	44
1.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44
2.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의 차이	51
3.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의 관계	68
4.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이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에 미치는 영향	76
5.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이 신체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	78
6.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에 미치는 영향	80
7.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	84
V. 결론 및 제언	87
1. 요약 및 결론	87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93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 분포	42
<표 2>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의 분포 및 검사지의 신뢰도	45
<표 3> 신체존중감의 요인분석	46
<표 4> 뷰티관리의 요인분석	48
<표 5> 헤어행동의 요인분석	50
<표 6>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애성향의 차이	52
<표 7>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기애성향의 차이	54
<표 8>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존중감의 차이	56
<표 9>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존중감의 차이	58
<표 10>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뷰티관리의 차이	60
<표 11> 개인적 특성에 따른 뷰티관리의 차이	62
<표 1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행동의 차이	65
<표 13> 개인적 특성에 따른 헤어행동의 차이	67
<표 14> 내·외현적 자기애성향과 신체존중감의 상관관계	79
<표 15> 내·외현적 자기애성향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	70
<표 16> 내·외현적 자기애성향과 헤어행동의 상관관계	71
<표 17> 신체존중감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	73
<표 18> 신체존중감과 헤어행동의 상관관계	75
<표 19> 자기애성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77
<표 20> 신체존중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79
<표 21> 뷰티관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82
<표 22> 헤어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8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현대인들은 사회나 국가의 가치보다 개인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창의성과 개성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Lasch는 후기 산업사회의 영향과 서양문명의 쇠퇴 속에서 우리가 자기애(自己愛)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조직화 되면서 생겨난 거대한 관리조직 때문에 생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나타나고, 가족이 해체되고 자기애가 조장된다고 하였다(최경도 역, 1989).

그러므로 현대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자기만족만을 추구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기애는 개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회를 대표하는 큰 특징적 양상 중 하나이며, 사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자기애 특성들을 조장하고 고양시키고 있다(최혜정 외, 2010). Fromm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애 성향이 필수적이고 가치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황문수 역, 1977). 따라서 자기애적 사고와 행동은 현대사회 속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양식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애적인 스타일의 표현은 현대 생활의 긴장과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국내의 자기애와 관련된 연구결과에서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서은혜, 2012; 강선희, 정남운, 2002; 박세란, 2004).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도 자기애적인 성향이 깊숙히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애적인 성향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특히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의 신체, 즉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에성향과 관련이 있다. 신체는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적 자산으로 인식되며, 강하고 아름다운 신체는 자신감과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매개체로서 개인적인 만족이나 사회적인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황윤정, 2007). 미국의 철학자 Ziglar는 “외모를 단장하라, 그러면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한결 긍정적으로 될 것이며, 당신의 외모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업무수행능력도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하였고(이정빈 역, 1994), Fowler-Hermes(2001)의 연구에서는 매력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고용 기회를 가지며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10~15% 더 많은 수입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외모를 가꾸는데 적극적인 사람은 성격도 적극적이고 업무에 임하는 태도도 긍정적이며 이는 곧 수입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박은아(2003)는 개인의 자기 신체에 대한 존중감은 전반적인 자기 자존감을 높게 하여 심리적 행복감을 지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체와 외모에 대해서 지각하고 자신의 타고난 외모와 신체적 결점을 그 시대가 요구하는 미의 기준에 맞추고 외모에 대한 정신적인 콤플렉스에서 탈피하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뷰티관리이다(김현정, 2009). 현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미의 기준 속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태도와 현실을 지각하고 신체적, 정신적, 물리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결점이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뷰티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적 욕구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며 이러한 욕구는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낸다. 외모를 가꾸는 행동 유형은 메이크업, 의상코디네이션, 헤어스타일, 피부관리, 성형수술 등 다양하며 최근 들어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증가 현상은 신체 및 외모관리와 관련된 산업이 급속히 팽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류현혜, 2007).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 자료 등을 인용·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성형시장 규모는 약 5조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제 성형시장 규모는 약 21조원으로 우리나라가 전체 시장규모에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BS 뉴미디어부, 2014). 또한 2011년 기준 뷰티서비스 산업의 매출액은 4조 9,710억원으로 헤어미용이 3조 9,846억원(80.16%), 피부미용이 6,900억원(13.88%), 네일 등 기타 미용업이 2,964억원(5.96%)을 차지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p. 6).

헤어미용 산업의 시장규모가 전체의 80.16%를 차지하듯이 현대인의 헤어관리는 뷰티관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사람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소의 한 부분으로 사회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람의 이미지나 스타일을 좌우하는 요소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황윤정 외, 2008). Cash(1985)는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 변인(신체매력, 신장, 체중, 체형, 헤어칼라나 스타일, 화장품사용, 의상 등) 중의 하나로 헤어스타일을 꼽았다.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변화는 단순히 미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그 시기의 유행 감각에 따라 각자의 개성에 의해 가지각색으로 나타나며, 헤어행동은 자신의 심리적 억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헤어행동은 단지 외모를 가꾸는 개인적인 행동이라 할 수 없으며, 대인관계를 지속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표현하며 자신을 평가하는 사회적 행동임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자기에 및 외모와 관련된 최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에성향별 신체매력성 지각이 미용추구혜택 및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유성(2011), 자기에성향에 따른 외모관여도 및 의복소비가치에 관하여 연구한 김혜정(2008), 여대생의 자기에적 성향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신체만족도를 매개효과로 연구한 정효현, 김정남(2012)의 연구가 있다. 또한 중년여성의 자기에성향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을 연구한 김종옥(2010), 여성의 자기에 유형에 따른 네일 서비스 구매행동과 만족에 관하여 연구한 유선미, 정재윤(2011)의 연구, 자기에성향,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를 연구한 서은혜(2012)의 연구 등이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가 중요시 되는 현대사회에서 자기애성향과 외모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내·외현적 자기애 성향이 헤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기애 성향자들은 자신의 미(美)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과시하려고 한다. 외모에 대한 집착은 극단적 다이어트와 성형중독증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외현적 자기애성향과 신체존중감에 따른 뷰티관리 및 헤어행동에 대한 연구는 현대인들의 바람직한 뷰티관리와 헤어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적극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2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성격특성인 내·외현적 자기애 성향을 파악하고 자기애성향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감의 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외현적 자기애성향과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와 헤어행동에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뷰티관리와 헤어행동의 심리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뷰티관리와 헤어행동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가 학술적 연구영역의 하나로서 한층 더 활기를 띠고, 그 결과들이 국내 뷰티 산업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뷰티산업의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마케팅 전략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성의 내·외현적 자기에성향, 신체존중감과 뷰티관리 및 헤어 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에성향,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와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에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에 대한 차이를 밝힌다.
- 둘째, 내·외현적 자기에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의 상호 상관 관계를 밝힌다.
- 셋째,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이 내·외현적 자기에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넷째,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에성향이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다섯째,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에성향,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여섯째,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에성향, 신체존중감이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에

1) 자기에의 개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취 지향적 가치의 중시로 집단 및 개인 간 극심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잡한 생활 국면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 점차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셜 네트워크의 등장과 함께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트렌드를 셀프홀릭(Self Holic)이라 하며 과도한 자기에적 성향을 뜻한다(서형택, 2011). 여기서 자기에(Narcissism)란 자기 자신의 행위나 특질에 부당하게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의 성격을 말하며, 현대사회의 문화적 흐름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성격특성이라 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리비도(libido, 성욕, 성 에너지)의 힘이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일컫는다(교육학용어사전, 1989. p. 443). 칸트사전(2009)에는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자기보존의 충동에서 출발하여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구하는 마음의 경향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은 이기심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 자체가 비난 받아야만 할 것은 아니지만 이기적인 자기욕망으로 변하기 쉽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자기에라는 용어의 공식적인 등장은 1898년 성(性) 의학자인 Havelock Ellis가 자기성애(auto-eroticism)가 강한 환자의 사례를 그리스 신화의 Narcissus 이야기를 빗대어 묘사하였고(Sarah, 2007, p. 1) 이듬해 Wilhelm Nacke가 독일에서 Ellis의 논문을 요약, 소개하면서 ‘Narcissmus’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Akhtar & Thomson, 1982). Freud, Kohut, Kernberg & Rosenfeld 등 많은 유능한 정신분석학자들이 자기에라는 개념으로 인간과

그 성격발달을 이해하고 설명해 왔다. 현재 자기애는 이상심리학에서 성격 특성을 기술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다(권석만, 한수정, 2000).

Freud에 따르면, 자기애란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로 향해져 자신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어린이가 자기의 몸밖에 알지 못하며, 자신의 몸에서 모든 쾌감을 맛보고 있는 최초의 어린 시절을 자기애의 기간이라고 일컬었다. 이것은 모든 갓난아기가 통과하는 시기이며,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Freud는 자기 자신의 일밖에 모르고 성장한 사람이나 자기 자신 안에서만 쾌감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자기애자라고 불렀다(Baker, 이경준 역, 1984). Reich는 자기애자들은 자기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보거나 완전한 실패자, 둘 중 하나로 본다고 하였다. 그들은 절망을 느낄 때, 이상화하고 동일시 할 수 있는 타인을 찾는 경향이 있는 반면 타인을 자아형성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자기애자들의 의견은 급격히 변한다고 하였고 희망적인 시기에는 타인들을 하향 비교대상으로 보지만 절망적인 때에는 타인들을 영감을 주는 상향 비교대상으로 본다고 하였다(Sarah, 2007).

Kernberg & Rosenfeld는 자기애를 파괴적 측면, 즉 대상인 타인을 병적으로 시샘하고 미워하며 적극적으로 파괴하려는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의 성향을 강조하였고(Holmes, 유원기 역, 2003), Horney(1939)는 자기애는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와 낮은 사회적 기술(예를 들어, 자기중심, 타인에 대한 강한 복수심, 불신, 무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매우 비현실적인 시각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애 이론에 상반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1960년대 후반에 자기심리학(Self-Psychology)을 연구한 Kohut로서, 자기애에 대한 당시의 인습적인 견해들과 다른 이론을 제시하였다(김해정, 2008). Kohut은 자기애가 건강하게 성숙하면 인간의 삶에 활력과 자존감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인격에 기여하게 되지만 유아적 자기애를 현실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좌절 체험을 '적절하게' 경험하지 못할 경우에 병

적 미숙에 머물면 자기에적인 성격장애가 된다고 보았다(권석만, 한수정, 2000). Ozmen은 어떤 개인이 자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며 또한 자신에 만족하는 것이 자기에라고 하였다. 자기 존중, 고유치, 자기 가치는 어떤 개인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감정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감정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난다고 하였다(Ibrahim etc, 2012, p. 1281).

이처럼 자기에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심리적 발달과 비정상적인 심리적 발달 모두에 관여하는 개념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란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성격구조의 한 부분이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전반적인 자기 평가라 보았다.

2) 자기에 유형

자기에자들은 모두 자신에게 몰두해있고 거만하다는 공통된 심리특성을 가지지만(Rose, 2001), 개인마다 자기에적 특성을 다른 방식으로 독특하게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자기에의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내현적 자기에(covert narcissism)와 외현적 자기에(overt narcissism)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Elizabeth etc, 2004; Akhtar & Thomson, 1982; Wink, 1995; 권석만, 한수정, 2000; 김해정, 2008).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와 외현적 자기에 측면을 함께 살펴봄으로서 이들 각각의 성향이 뷰티관리와 헤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보기로 한다.

(1) 내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지나치게 민감하고 열등감, 무가치함, 취약함을 보이며 힘과 명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의 경향이 있다. 또한 대인관계의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만성적인 이상화와 강한 시기심, 칭찬에 대한 강한 갈망을 보이고, 사회적 적응면에서는 만연된 지루함, 불확실성,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에 대한 불만족을 특징적으로 보인다(Akhtar & Tomson, 1982). 이들의 거대자기 환상은 대부분 무의식으로 숨겨져 있어서 친밀한 관계에서만 과시적이고 웅대한 환상이 나타나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울, 불안, 그리고 과민한 모습들이다. 이들은 대개 소심하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김해정, 2008; 황성훈, 2010). Wink(1991)는 내현적 자기애는 방어적이고 불안한 경향과 외상에 대해 취약하며, 주관적인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에서 외현적 자기애보다 더 역기능적이고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고, Gabbard는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타인보다 못하다고 느끼며,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하고,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Rose, 2001).

최인선, 최한나(2013)는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각각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권은미 외(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윤성민, 신희천(2007), 박영주, 정남운(2013)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험회피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운(2001)은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 Hendin & Cheek, 1997)를 번안하여

타당화 하는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심리적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외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보이는 피험자들은 자신을 매우 외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으로 보고하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을 보이는 피험자들은 내향적이면서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면서도 부정적 측면이 중요하게 부각될 때에는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증폭된다. 또한 부적응적인 방어유형과 소극적이고 적대적이며 회피적인 대인관계특성을 보인다고 한다(강연우, 2004).

이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특징은 자기상(自己像)이 상처 입는데 예민하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며, 부정적 평가에 취약하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위축되어 있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하고, 다른 사람 말의 비판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쉽게 느낀다고 할 수 있다.

(2) 외현적 자기애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고양된 자기존중, 거만함, 당당함, 부에대한 화려함, 권력, 특권의식, 자신은 취약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인관계에서는 피상적이고 타인을 무시하고 평가 절하하는 경향과, 사회적 적응면에서는 사회적 성공과 과시행위, 강한 야망을 보인다(Akhtar & Tomson, 1982).

Wink(1991)는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과장, 과시, 특권의식, 거만함이 외적으로 잘 드러나며 의식수준에서의 자존감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자존감은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써 자신의 성취나 재능, 업적에 대한 자랑, 타인으로부터의 칭찬과 인정,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거절에 대하여 상대방을 평가절하하거나 분노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애쓴다고 하였다. 김유성(2011)은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평가가 긍정적이며 자존

감이 높고 우울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강한 성향을 지닌 자기애라 하였다. Rose(2001)는 외현적 자기애 유형은 만성적인 자기고양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Raskin & Novac(1989)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냉정하고 독재적이며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심리를 강하게 드러낸다고 하였다. Cooper & Ronningstam, Gabbard는 외현적 자기애자들은 타인의 요구를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하였다(Rose, 2001, p. 380). 정호현, 김정남(2011)은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행동에 있어 자기사랑과 자기보호, 그리고 자기공격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사랑과 자기무시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외현적 자기애는 자신이 타인에게 비난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타인 역시 나에게 비난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는 자신은 타인에게 공격과 방임하는 행동 사이에서 갈등하며, 타인이 나에게 보이는 행동 역시 공격과 방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외현적 자기애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건강한 성향을 지닌 반면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바라며,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감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3) 자기애와 외모관련 특성

자기애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미(美)를 숭배하고 과시적이며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한다(김해정, 2008).

박은정, 정명선(2010)은 자기애를 과시/칭찬욕구, 리더십/자신감, 권위주의/

특권의식, 우월의식이라는 네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체중관리, 피부관리, 메이크업, 헤어관리, 의복선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과시/칭찬욕구가 모든 외모관리행동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종옥(2010)의 중년여성의 자기에성향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하위요인 중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과 외모관리행동의 몸매관리, 화장/헤어관리, 방문외모관리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외현적 자기에 전체와 외모관리행동 전체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유선미, 정재윤(2011)은 여성의 자기에 유형에 따른 네일 서비스 구매행동과 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주장이 강하고 권위적 성향을 가진 권력지향형 집단은 구매 후의 만족도와 재구매의도 그리고 구전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타인 의지와 자기에 요인이 낮은 사회 폐쇄형 집단은 네일서비스 구매 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황연순(2009)은 소비자의 자기에 성향과 화장품 쇼핑성향과의 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자립심이 강한 자기에성향을 가진 소비자는 자신이 내린 화장품 구매의사 결정에 대해서 자기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특권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에성향의 소비자는 충동성, 쇼핑편의성, 쾌락성, 유명상표지향의 화장품 쇼핑성향을 통해 비계획적인 충동구매를 하여 자기통제감 부족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김혜정(2008)은 자기에 성향에 따른 외모관여도 및 의복소비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타인의식적 자기에 요인이 높은 복합적 자기에 집단, 타인의식적 자기에 집단 순으로 외모관여도가 높게 나타났고 위축된 자기에 집단은 낮은 외모관여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복합적 자기에 집단, 타인의식적 집단은 타인을 의식하여 유명브랜드 지향도가 매우 높았고,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자신의 신체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에 의식적 자기에 집단은 의복의 과시소비 성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에 성향은 외모관여도와 의복 과시소비성향, 의복소비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외모관련사업 및 패션산업에 고려해야 하는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서은혜(2012)의 자기에성향,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연구에서는 자기에성향이 높을수록 신체의식도 높게 나타났고 자기주도적 자기에는 타인의존적 자기에보다 모든 외모관리행동에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김유성, 박옥련(2009)은 자기에성향에 따른 집단별 외모관심도 및 미용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자기에 집단을 복합적 자기에집단, 혼재적 자기에집단, 타인 과민적 자기에집단, 위축적 자기에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화장 중요도는 기초화장, 기능성화장, 피부화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헤어 중요도는 헤어디자인, 두피건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든 집단에서 미용성형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네 집단 모두 외모관심도에서는 외모연출관심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복합적 자기에집단은 미용행동의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미용행동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가장 적극적 집단이라고 하였다.

김유성(2011)은 자기에성향별 신체매력성 지각이 미용추구혜택 및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에가 높은 집단은 자신의 신체를 매력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체중·몸매관리, 피부관리를 통해 심리적인 만족과 자신감을 얻고 싶은 기대욕구가 가장 높았고, 미용추구혜택과 미용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의복행동에서 자기감시와 자기에에 관한 김지윤(2013)의 연구에서는 자기에가 높은 사람일수록 의복에 더 많이 관여하고 의복을 자주 구매하는 동시에 의복에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자기에가 높은 사람일수록 화장품에 더 많이 관여하고 화장품을 자주 구매하며 화장품에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자기에성향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현대인의 미에 대한 표출인 외모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임상심리학 및 정신의학의 연구에서 병적인 자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면 앞으로는 자기에 관한 연구들이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성격성향으로 보고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의 양면성을 모두 지닌 자기에 성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신체존중감

1) 신체존중감의 개념

현대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나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정도는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신체는 현대인에게 있어 자신을 인식시킬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수단이며 신체를 통하여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존재인지를 표현하게 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존재를 평가 받기 때문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중요하다. 김완석(2007)은 신체존중감은 자기존중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기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Franzoi & Shields(1984)는 개인의 신체적 자기지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느낌 등 다차원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정신적 표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신체만족도와 같은 개념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승아(2009)는 신체존중감은 신체의 기능과 외양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일종의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Mendelson(2001)은 신체존중감을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자기 평가라고 정의 내렸고, 개인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Diener(1999)는 자기 신체에 대해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전반적 태도를 지칭하는 신체존중감이 신체만족도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지각과 이상적인 신체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클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신체존중감은 감소한다(Posavac, 1998).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을 많이 띤다면 신체존중감이 높은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신체존중감은 낮은 것이다(이정숙, 2001). 신체존중감은 변화될 수 있으며, 연령과 성별, 비만과 체형 등 여러 요인들에 대한 심

리, 사회적 영향과 관련하여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할 수 있다(안중연, 2002).

Franzois & Shields(1984)는 신체상의 구성요소를 그들이 개발한 신체 존중감 척도(BES: Body Esteem Scale)에서 추출된 체중관련요인, 건강관련요인, 성적매력요인 등의 세 요소라고 하였으며, 지금까지 개발된 척도들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Harre(1991)는 인간의 신체란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개인이 구체화한 것이며 체형과 체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고, Cash(1990)는 신체영역을 외모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적합성과 건강, 질병을 포함하는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김완석(2007)은 우리나라 표본을 대상으로 남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체존중감 척도를 제작하였는데,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 그리고 체기능존중감의 세 요인으로 확정하였다.

이와같이 신체존중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신체에 관련한 인간행동의 다양한 영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외모뿐 아니라 내장기관이나 근육의 기능과 같은 체기능에 대한 존중감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존중감을 신체만족도와 유사개념으로 보고 신체건강, 몸무게, 외모를 포함한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주관적 시각에 의한 평가를 통해 그에 수반되는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신체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 정의 내리고자 한다.

2) 신체존중감 선행연구

신체존중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ntz & Betz(1986)는 여성들은 실제 몸무게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생각했고, 대부분의 여성이 체중감량을 원한다고 하였다. 반면 자신의 신체에 불만족스러운 남성은 스스로를 저체중으로 생각하는 경

향이 있었고, 체중을 감량하기 보다는 늘리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Franzoi 등 (1984)은 사회 초년생들의 신체만족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하는 BES(Body Esteem Scale)의 집중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설립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좋은 타당도는 남성은 상체의 힘, 신체적 조건이라는 부척도를 통해, 그리고 여성은 체중 관심, 신체적 조건 그리고 성적 매력도라는 부척도를 통해 논증되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Barak etc, 1998) 모든 참가자들은 다음의 부척도를 적용하여 스스로를 평가하는 BES를 완료한 결과 여성은 성적 매력도, 신체적 컨디션과 몸매, 남성은 신체적 매력도, 신체적 컨디션과 상체 힘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이는 정상인이나 환자에 상관없이 성별에는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식이장애를 진단받은 여성은 날씬한 이상형에 대해 엄청난 동경을 보였다(Welsh, 2009). Stice & Shaw(2002)는 사회 문화적 환경의 압력이 여성들의 마른 몸매에 대한 욕구나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며 이러한 변인들은 섭식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손은정, 2007; Fabian & Thompson, 1989). 신체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무리한 절식행동은 영양섭취에 지장을 주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대중매체와 신체상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른 몸매를 강조하는 매스미디어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미영 외, 1997; 김재숙, 이미숙, 2001; Hamilton & Waller, 1993). Tucci & Peters(2008)는 여학생의 신체만족도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마른체형과 과체중 모델의 잡지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노출한 결과 마른체형을 본 후에 신체불만족, 섭식장애, 날씬한 신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미국여성들은 신체건강과 미에 높은 가치를 둔다고 알려졌다. 서양의 미디어는 개인이 어떤 내면의 가치를 지니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육체적으로 매력적인지에 초점을 둔다고 비난받는다(Cogan etc, 1996). Akiba(1998)의 연구는 미국인들이 이미 서구화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기에 노출이 적은 이란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란은 서구화된 미디어를 20년 전부터 금지해왔고 게다가 미디어에 나오는 이란 여성들은 그녀의 머리까지 감추며 화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 인지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을 순수하게 연구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이란 참가자가 미국 참가자보다 더 높은 BES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이란 여성이 그들의 신체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매체는 자신의 신체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중매체에서 전달하는 메시지의 영향이 단지 신체상에 국한된다기보다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이에 따른 섭식장애, 성형수술과 같은 좀 더 일반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됨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같이 신체에 대한 관심은 현대인의 삶에서 신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과도한 다이어트, 약물복용, 성형수술 등)은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영역의 주요 연구 주제로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정신의학, 영양학, 여성학, 심리학 분야 등에서 개인의 부적응적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는 신체이미지 왜곡, 혹은 부정적 신체존중감의 영향이 논의되고 있다(김완석, 2009).

3) 신체존중감과 외모관련특성

현대사회에서 대중의 관심은 외모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체외모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존중감을 신체만족도와 유사개념보고 연구를 진행 하였다.

전현진, 정명선(2010)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존중감이 미용성형수술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내면화 차원과 미디어 정보 차원이 신체존중감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압력 차원은 신체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미

의 내면화는 신체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존중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주름제거수술, 가슴확대수술, 얼굴윤곽수술, 치아교정, 라식 혹은 라섹수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주름제거수술을 제외하고 신체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미용성형수술을 더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진아 외(2010)의 신체만족도에 따른 헤어스타일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체만족도는 헤어스타일태도 중 모방형, 소심형, 비관형에 영향을 주었고 신체만족도 중 평가적 만족도, 실제적 인식만족도는 관심형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순(2011)은 대학생의 신체만족도가 전반적인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신체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외모관리행동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그 중 의복에 대한 관심이나 헤어에 대한 관리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체중에 대한 관리정도는 낮아진다고 하였다. 여자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존중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진주(2013)의 연구에서는 신체존중감의 하위 변인 중 외모존중감과 체중존중감이 자신의 외모를 '똥똥하다'고 생각하는 여자 청소년이 '보기좋다'와 '말랐다'고 생각하는 여자 청소년보다 더 낮게 나타났고, 신주동 외(2008)의 여대생의 신체만족도와 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착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여대생일수록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를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주현 외(2009)는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외모관리태도 연구에서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신체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신체에 대한 욕구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이상적인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각 신체 부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

다.

서란숙(2014)의 여성의 신체이미지와 자아 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연구에서는 신체매력도가 높을수록 화장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동일한 신체매력도 내에서도 세련된 이미지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화장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김수경 외(2008)는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가 피부관리, 메이크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신체만족도 중 머리만족도는 유의미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고, 얼굴만족도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성남숙 외(2011)는 신체이미지와 토털 패션이미지와 의 관계에서 외모관심과 신체자신감이 높은 여성은 의복과 메이크업 및 헤어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체중관심은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의 요인 중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체중관심과 시각적 이미지 연출은 관계가 미흡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명희 외(2006)는 헤어스타일 만족도에 따른 신체만족도의 차이 연구에서 헤어스타일에 만족할수록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헤어스타일 만족집단과 보통집단은 불만족집단보다 신체의 상지, 몸통, 하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헤어스타일 만족도에 따라 신체 부위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신체이미지는 개인의 정신, 심리적 경로를 통해 신체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뷰티관리

1) 뷰티관리의 개념 및 유형

인간은 근본적인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인 이미지, 개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자기표현의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뷰티관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홍수남, 2013) 자신의 외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려는 의지가 뷰티관리를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아름다움을 뜻하는 영문 ‘뷰티(beauty)’는 좁은 의미로는 보통 미(아름다운 것, 고운 것)를 말하나, 넓은 의미로는 ‘미적(美的)’의 동의어로서 다른 여러 범주도 포함하여 미적 현상의 모든 영역을 통하는 특수한 정신적 가치 내용을 말한다(세계미술용어사전, 1998).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는 ‘미적인 감각, 특히 시각을 즐겁게 하는 형태, 색, 구조와 같은 속성들의 조합’이라는 정의와 더불어 ‘아름다운, 또는 즐겁게 해주는 사물 또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정의를 제시하였다. Wikipedia에서는 ‘감각적으로 즐겁거나, 의미가 있거나, 만족을 시켜주는 경험을 가져다주는 인간, 사물, 생각 등의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성영신과 박은아(2009)는 이와 같은 사전적 정의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아름다움에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며, 내적인 대상보다는 외적인 대상에 대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설현진(2009)은 현재 패션뷰티업계와 사회 전반에서 뷰티를 머리와 얼굴, 손·발톱 등을 아름답게 단장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우리가 타인을 지각할 때 단서로 사용하는 신체적 특성인 얼굴모습, 피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매니큐어 등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내면화시켜 나가는 행동을 뷰티관리행동이라고 하였다. 외적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에도 영향을 주어 불만족스러운 부

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려는 동기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뷰티관리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오별 외(2012)는 뷰티관리행동은 얼굴모습, 피부,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기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내면화시켜 나가는 행동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관리행동은 사회적 유행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뷰티산업의 변화를 가져다주며, 자기 이미지 관리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명희, 이은실(1998)은 뷰티관리행동을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뷰티의 적용 방법이나 행동, 외모 꾸미기 전반에 관련된 것이며 외모는 인체와 더불어 인체에 가해지는 의복이나 액세서리, 화장, 머리스타일 등에 의해 결정되고 수정되므로 외모에 대한 관심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지각하며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고하였다. Kaiser(1985)는 여성들은 다양한 헤어, 화장, 의상 등의 외모관리 행동을 통해 외모개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 이상적인 신체상과 실제적 신체와의 차이를 최소화시키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현대인들은 외모를 자신의 내면이나 능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하였으며, 요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체중조절, 미용성형, 화장, 피부관리, 의복, 헤어관리 등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뷰티관리를 수행하였다(박주현, 2010).

뷰티관리의 유형 중 메이크업에 관련된 행동에는 기초화장, 색조화장, 손톱화장, 눈썹문신, 색조화장품 구매 등이 있고, 성형관리행동에는 얼굴성형, 피부성형(점, 기미, 주근깨제거), 가슴성형, 주름제거(안면 거상술, 주름 제거술, 레어저시술), 체형보정(지방흡입술, 근육제거술) 등이 있다(김성희, 2009). 헤어연출행동에는 염색, 컷, 펌, 탈모관리, 모발관리행동, 스타일변화(드라이, 고테기) 등이 있으며, 피부관리에는 미용기구사용(초음파기, 저주파기), 기능성화장품 사용, 각질제거, 팩, 마사지 등이 있다. 몸매관리에는 체중조절과 체형관리가 있으며 보정속옷착용, 운동, 다이어트, 경락 마사지, 사우나, 한방요법

(침, 한방제 복용) 등이 있다(이영분, 2011; 이경숙, 2007).

이유중 (2010)은 얼굴관리행동에는 주름완화, 잡티보완, 탄력유지를 위한 피부미용과 화장이 있으며 체형관리행동은 식사량 조절과 운동, 헤어관리행동은 머리모양과 두피관리, 모발관리를 의미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태미(2010)는 뷰티관심도가 외모관심도에서 과생되었다고 보았고, Lennon & Rudd(1994)는 외모관리행동을 체중조절, 운동, 화장품사용, 성형수술, 체형 보정 속옷 등의 착용에서 섭식 장애나 약물 남용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동까지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뷰티관리는 외모관리의 한 부분으로 인체의 외적이미지를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건강하게 관리하기위한 행동이라 정의 내리며, 뷰티관리의 여러 가지 유형 중 메이크업연출, 성형관리,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로 뷰티관리를 제한하고자 한다.

2) 뷰티관리의 선행연구

몸은 개인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메시지를 투사하는 사회적 상징물이며, 몸을 표현하는 것은 자아표현의 본질적인 부분이기에 몸은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박광희 외, 2012).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며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감을 발휘하는 반면,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스스로 지각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없으며 타인에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Cash & Pruzinsky, 1990). 따라서 여성의 긍정적 신체이미지는 높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Berscheid, Walster & Bohrnstedt, 1973; Franzoi & Shields, 1984).

박은아, 우석봉(2006)은 한국인의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서 ‘나를 꾸미는데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라는 문항에 응답자의 65.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신체 가꾸기를 향한 관심과 노력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름다운 외모를 향한 열망은 화장, 헤어 같은 꾸미기 행동에서부터 성형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개선행동까지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외모에 대한 관심은 뷰티관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고 자신의 이상적인 신체상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뷰티관리를 외모관리행동 영역의 한 부분으로 보고 외모관리행동에서 헤어, 얼굴, 성형, 피부, 몸매와 관련된 연구를 유사 선행연구로 함께 고찰하였다.

설현진(2010)은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청소년은 이성친구가 있고, 연령이 높으며 부모의 교육정도가 낮고 용돈이 많을수록, 뷰티 관심도가 높고 뷰티행동도 적극적이라고 하였으며, 헤어, 얼굴, 네일 뷰티관심도는 헤어, 얼굴, 네일 뷰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동일부분 사이에서만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뷰티관심도는 헤어뷰티행동에, 헤어뷰티관심도는 네일뷰티행동에, 네일뷰티관심도는 다시 얼굴뷰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분야의 뷰티행동으로 파급되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김영란(2010)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용관심 요인 연구에서 피부, 헤어, 화장에 대한 미용관심이 의사소통에 정적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뷰티관리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며,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자기 이해가 높아져 자신의 개성에 맞는 긍정적 외모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커지고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된다고 하였다. White(2004)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모관리효과는 자기 관리여부인 피부관리, 화장관리, 모발관리의 행동으로 심리적인 기대효과를 볼 수 있고, 육안으로 보이는 피부표면 상태에 따라 피부건강이 감정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박현주, 박숙현(2011)은 과시소비성향, 뷰티관여도의 상관성 연구에서 대학

생은 고가격지향 군집과 유행추구지향 군집에서 뷰티관여도가 높게 나타났고, 직장인은 개성추구지향, 고가격지향, 유행추구지향에서 뷰티관여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용 상품기획에 있어서 고가격 전략은 오히려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가 외모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전현진과 정명선(2008)은 중년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헬스나 요가를 통해 외모관리를 하는 반면, 학력이 낮을수록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홍수남(2013)은 한국여성과 이주여성의 외모관심도와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연구에서 한국여성은 신체만족도에서 미용성형에 대한 부의 관계로 외모에 만족할수록 미용성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여성은 신체만족도와 미용성형관리행동은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여성은 체형만족도가 높을수록 피부관리, 체형관리행동이 높고, 얼굴 만족도가 낮을수록 미용성형관리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여성은 체형만족도가 높을수록 메이크업 및 헤어, 피부관리행동을 하고, 전문교육과 얼굴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체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오수연(2012)의 가치관에 따른 소비자 집단의 외모관여도와 피부관리 구매행동 연구에서는 소비자 유형에 따른 외모관여도 차이는 성공추구유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추구유형은 전체평균보다 약간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소극적 유형은 세 집단 중 외모관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뷰티관리는 더 이상 과시나 사치가 아닌 생활에서 필수 요건이 되었으며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아끼는 일련의 행위들은 신체 외적인 만족과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정과 부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선영 2014). 외모 향상은 자기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가진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가치관의 변화는 뷰티와 관련된 소비

행동에 있어서도 많은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박현주, 2012). 뷰티관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인 이미지, 개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자기표현의 수단이기도 하다. 21세기는 ‘이미지 연출 시대’라고 할 만큼 시각으로 보여지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뷰티에 대한 관심이 끊임 없이 요구되어 이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4. 헤어 행동

1) 헤어 행동의 개념

헤어는 몸에서 성장하는 유일한 패션 악세사리다(Kaufman, 1998). 이는 헤어스타일이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 변인 중의 하나로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고, 개성 표현의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머리형은 시대, 민족,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모두 의복과 관련되어 발전하였고, 어느 시기에는 의복을 능가하여 패션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또 계급이나 성별을 나타내는 중요한 포인트였다(패션전문자료사전, 1991, p. 1510). Reiman(2009)은 사람들 간 의사소통의 93%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몸동작, 얼굴 표정, 말하는 속도, 차지하고 있는 자리, 향수, 액세서리, 헤어스타일과 같은 다양한 외적 요소들이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특히 헤어스타일은 얼굴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표현되는 것으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적합한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매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써 그 가치는 다른 어떤 요소들 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헤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헤어관련 행동을 지칭하는 데에 헤어스타일행동과 헤어 행동, 헤어태도, 헤어스타일태도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박숙현 외(2006)는 헤어스타일행동은 헤어스타일에 대한 태도, 흥미, 관심, 습관, 헤어스타일의 선택 및 착용행위로 정의 하였고, 정진태, 김철순(2009), 김민선(2013)은 헤어행동이란 일반적인 헤어에 대한 태도와 연출 행동, 헤어스타일 선호도, 헤어스타일 변화요인, 헤어지출 비용에 관련한 요인이며 헤어스타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행동을 다루는 포괄적 용어라 하였다. 오의재(1995)는 태도는 대상을 가지고 이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헤어태도는 헤어에 대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려는 것, 헤어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또는 헤어와 관련된 것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하였다.

김미리(2012)는 헤어스타일 연출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행위를 헤어행동이라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어행동이란 자신의 외모 중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개인적,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심리상태에 따라 지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전반적 행동성향을 다루는 용어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헤어대인지향성, 헤어개성, 헤어동조성, 헤어일관성으로 헤어행동을 제한하고자 한다.

2) 헤어행동의 선행연구

헤어는 얼굴의 매력성향상과 패션완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외모 요소이며, 같은 사람이라도 헤어스타일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과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지각되게 한다(최수경, 2010). Workman & Johnson(1991)은 머리모양은 메이크업과 의복이 통합하여 개인의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헤어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정경숙 외(2002)는 성인 여성들의 자아존중감과 헤어의 관련성에 대하여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고 헤어에 만족하는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헤어에 대한 만족이 정신건강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Verlin 외(2013)는 남자는 여자의 밝은 머리를 선호하는데 그것은 밝은 머리색이 젊음과 건강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반면 여성은 성숙함과 안정성을 의미하는 남성의 어두운 머리를 선호한다고 하여 남성과 여성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주비 외(2005)는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 및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헤어스타일 행동을 동조성, 개성성, 심미성, 의존성, 편의성의 5가지 차원으로 나누었고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행동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헤어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하주연 외(2005)는 헤어스타일의 태도요인을 헤어스타일 흥미도,

헤어스타일 개성추구, 헤어디자이너 의존성의 3가지 차원으로 도출하고 외모 관심과 감각추구성향, 체중관심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헤어스타일 흥미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더불어 헤어스타일 개성추구에는 외모관심, 감각추구성향, 신체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헤어스타일로 개성을 표현하고자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헤어디자이너 의존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전현진 외(2011)는 헤어스타일 행동 차원을 헤어동조성, 헤어개성, 헤어심미성, 헤어편리성의 4개의 차원으로 도출하였고, 여대생들은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추구 하였으며, 헤어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헤어관여도가 낮은 사람들보다 다양한 헤어스타일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미리(2012)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스타마케팅 관심도 및 헤어행동 간의 관련성 연구에서 헤어행동을 동조성, 편리성, 심미성, 개성의 4개의 요인으로 도출 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요인 중 유행추구는 유행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 연예인의 헤어스타일과 같이하려는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고 브랜드가치 추구 소비자는 타인과 다른 자기만의 이미지를 더욱 고급스럽게 보이려는 성향이 높아서 헤어행동 중 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마케팅 관심도가 높을수록 헤어행동 중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스타마케팅 관심도가 낮을수록 편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옥(2011)은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 행동 및 화장동기의 관계 연구에서 지배우월, 과시도취, 사교우호 등의 대인관계성향은 헤어스타일 행동 및 화장동기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지배우월의 성향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 행동의 동조성과 유행을 동시에 중요시 하면서 다양한 화장동기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경제, 사회적 만족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의 동조성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행복감이 높은 여성적인 미용이미지를 선호하였고, 신체적 만족이 높은 여성은 화려한 미용이미지를 선호하였

다고 하였다.

이혜원, 김미영(2007)은 의복관여에 따른 헤어관여와 헤어태도에 대한 연구에서 헤어태도를 헤어 선도자 동조 지향, 헤어 차별적 개성 지향, 헤어 항상성 지향, 헤어 대인 지향의 4개의 차원으로 밝혔다.

김미선(2011)은 헤어스타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헤어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헤어태도를 유행성 추구, 동조성 추구, 개성추구, 심미성 추구 4개의 차원으로 분석하였고 여러 헤어태도 차원이 현재 헤어스타일 변화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성추구와 심미성 추구차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해주연 외(2005)는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에서 헤어스타일 태도에 대한 요인을 헤어스타일 흥미도, 헤어스타일 개성추구, 헤어디자이너 의존성으로 구성하였고 박주비, 정옥임(2005)은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헤어태도의 요인을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성, 헤어심미성, 헤어의존성의 4가지로 도출하였으며 여대생들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의복행동과 헤어스타일 행동에서 유사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신체에 만족할수록 심미성을 추구하며, 불만족할수록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의 변화와 유행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활동하기 편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는 무난함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희영(2011)은 20대 여성의 헤어태도 집단에 따른 헤어관여 차이 연구에서 헤어태도를 동조성, 심미성, 정숙성, 개성성의 4개 요인으로 도출하였고, 분석결과 동조성, 개성성, 정숙성, 심미성 모두 적극적인 태도 집단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특히, 심미성은 적극적 태도집단과 안정적 태도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소극적 태도 집단에서는 중간정도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같이 헤어관련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행동중의 하나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이 되어 왔다. 장식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며, 대

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자기가치 표현의 수단으로, 이미지 연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고 긍정적인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6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내·외현적 자기에 성향, 신체존중감과 뷰티관리 및 헤어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에성향,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 및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에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의 차이를 밝힌다.

- 1)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에성향의 차이를 밝힌다.
- 2)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존중감의 차이를 밝힌다.
- 3)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뷰티관리의 차이를 밝힌다.
- 4)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헤어행동의 차이를 밝힌다.

연구문제 2. 내·외현적 자기에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 1) 내·외현적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내·외현적 자기애성향과 뷰티관리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내·외현적 자기애성향과 헤어행동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신체존중감과 뷰티관리의 관계를 파악한다.
- 5) 신체존중감과 헤어행동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3.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 및 헤어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 1)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이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2)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이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3)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4)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용어 정의

본 연구에 쓰인 용어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는 선행논문을 토대로 연구자의 연구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자기에

자신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며 또한 자신에 만족하는 마음의 경향을 의미한다(Ibrahim etc, 2012).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란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성격구조의 한 부분이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전반적인 자기 평가라 보았다.

2) 내현적 자기에

내향성을 지닌 자기에로서 자기상이 상처 입는데 예민하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며, 부정적 평가에 취약하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위축되어 있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 말의 비판적인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특징을 지닌 부적응적 성향의 자기에로 본다(Wink, 1991; Akhtar & Tomson, 1982).

3) 외현적 자기에

외향성을 지닌 자기에로서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되게 지각하고,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바라며,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모습을 보

이는 특징이 있으나(Akhtar & Tomson, 1982; Wink, 1991; Rose, 2001)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건강한 성향을 지닌 자기애(김유성, 2011)로 본다.

4) 신체존중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이승아, 2009) 신체건강과 신체외모를 포함한,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주관적 지각에 의한 평가를 통해 그에 수반되는 감정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신체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 정의 내리고자 한다.

5) 뷰티관리

뷰티관리는 외모관리의 한 부분으로 인체의 외적 이미지를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행동이라 정의내리며, 뷰티관리의 여러 가지 유형 중 메이크업연출, 성형관리,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로 뷰티관리를 제한하고자 한다.

6) 헤어행동

자신의 외모 중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개인적, 사회적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심리상태에 따라 지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전반적 행동성향을 다루는 용어로 헤어대인지향성, 헤어개성, 헤어동조성, 헤어일관성으로 헤어행동을 제한하고자 한다.

7) 헤어대인지향성

사회적인 상호관계 속에서 특정 개인이 타인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의식하여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심리적 지향성의 행동이다.

8) 헤어동조성

동조성은 사회생활 집단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심리적 압력 때문에 행하는 행동으로 집단 내 구성원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강혜원, 1995). 따라서 헤어동조성은 다른 사람이나 주위의 사람들과 유사한 헤어스타일을 하고자하는 행동성향이라 정의한다.

9) 헤어개성

독특한 자신만의 특성을 가지고 타인과 다른 헤어스타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행동성향이다

10) 헤어일관성

일관성은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성질을 의미한다(국어사전, 2006, p. 2066). 따라서 헤어일관성은 자신이 늘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남을 의식하고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고수하는 행동성향을 일컫는다.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총 6부로 구성하였으며 각 부분의 측정내용과 변수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I부는 외현적 자기에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II부는 내현적 자기에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III부는 신체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IV부는 뷰티관리를 측정하는 문항이다. V부는 헤어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마지막으로 VI부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이다. 총 문항수는 13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내현적 자기에 척도

내현적 자기에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는 총 45문항으로 강선희, 정남운(2002)이 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Ahkter와 Thomp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김유성(2010)은 총 45문항 중에서 내현적, 외현적 자기에를 모두 공유하고 있는 문항을 제외하고 내현적 자기에의 특성을 측정하는 27문항만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유성(2010)의 내현적 자기에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2) 외현적 자기에 척도

외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은 DSM-III(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의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대한 진단적 준거를 사용하여 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총 54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1)이 공통요인분석을 통해 32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분법적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적

자기에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3) 신체존중감 척도

신체존중감(Body-Esteem)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완석과 차주화(2006)가 개발한 신체존중감 척도 KOBES(Korean Overall Body 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의 총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어 총 18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4) 뷰티관리

뷰티관리는 박숙현, 박현주(2011), 류현혜, 유태순(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뷰티관리의 하위 요인은 메이크업연출, 성형관리,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어 총 25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5) 헤어행동

헤어행동은 김미리(2012), 노선옥(2011), 이혜원, 김미영(2007), 박주비(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헤어행동의 하위요인은 헤어대인지향성, 헤어동조성, 헤어심미성, 헤어개성, 헤어향상성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6)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결혼여부, 학력, 직업, 월평균 개인소득을 조사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은 월평균 외모관리비, 운동, 음주, 흡연, 다이어트에 대한 현재 상태를 조사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지역의 20대 이상의 여성으로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거나, 개인의지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30대, 40대, 50대~60대로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이고 서울지역 뷰티샵에 조사원을 파견하여 전체 66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자료 19부를 제외한 20대 156부, 30대 161부, 40대 162부, 50대 이상 162부 즉, 641부를 최종 통계분석자료에 사용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 개인의 월평균소득을 조사하였다. 20대 156명(24.3%), 30대 161명(25.1%), 40대 162명(25.3%), 50대는 142명(22.2%), 60대는 20명(3.1%)로 분포되었으며 자료분석에서는 60대의 인원이 적은 관계로 50대와 함께 통합하여 분석 처리하였다. 결혼여부별로 볼 때 384명(59.9%)이 기혼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185명(28.9%)이었으며, 학생이 33명(5.1%)이었으며 그 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423명(66.0%)이었다. 그러나 이하분석에서는 직업부분은 직업이 없는 여성과 직업이 있는 여성으로 재분류하여 사용하였다. 학력의 경우 중졸부터 대학원졸까지 구성하였으며, 대학생과 대학졸업을 통합하고, 대학원생과 대학원졸업을 통합하며,

대상이 적은 종족의 경우 고졸과 통합하여 고졸이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학력은 고졸 이하가 110명(17.2%), 대졸은 465명(72.5%), 대학원졸은 66명(10.3%)로 각각 구성되었다. 월평균 개인소득은 150만원~300만원 미만인 대상자들이 223명(34.8%)를 차지하였다.

개인적 특성은 자신의 외모관리비, 운동, 흡연, 음주 및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외모관리비는 월평균 10만원~20만원이 190명(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만원~100만원은 48명(7.5%), 100만원 이상은 15명(2.3%)이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여성은 444명(69.3%), 음주를 하지 않는 여성은 310명(48.4%),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은 560명(87.4%)이었으며,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는 여성은 524명(82.8%)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의 분포

	변인	항목	N(%)
인구통계적 변인	연령	20-29	156(24.3)
		30-39	161(25.1)
		40-49	162(25.3)
		50-59	142(22.2)
		60-69	20(3.1)
	결혼여부	기혼	384(59.9)
		미혼	257(40.1)
	직업	전업주부	185(28.9)
		사무직	277(43.2)
		공무원/교사	25(3.9)
		서비스직	18(2.8)
		판매서비스직	14(2.2)
		자영업	22(3.4)
		기술직	3(0.5)
		전문직	64(10.0)
	학력	학생	33(5.1)
		중졸	2(0.3)
		고졸	108(16.8)
		대학생	33(5.1)
		대졸	432(67.4)
개인소득	대학원생	12(1.9)	
	대학원졸	54(8.4)	
	100만원 미만	69(10.8)	
	100-150만원 미만	73(11.4)	
	150-200만원 미만	111(17.3)	
	200-300만원 미만	112(17.5)	
	300-400만원 미만	94(14.7)	
400-500만원 미만	96(15.0)		
500만원 이상	86(13.4)		
개인적 특성	외모관리비	10만원 미만	161(25.1)
		10-20만원 미만	190(29.6)
		20-30만원 미만	146(22.8)
		30-50만원 미만	81(12.6)
		50-70만원 미만	34(5.3)
		70만원 이상	29(4.5)
	운동	유	444(69.3)
		무	197(30.7)
	음주	유	331(51.6)
		무	310(48.4)
	흡연	유	81(12.6)
		무	560(87.4)
	다이어트	꾸준히 하고 있다	184(29.7)
		가끔 하고 있다	148(23.1)
		하다 안하다 한다	192(30.0)
거의 하지 않는다		78(12.2)	
전혀 하지 않는다		39(6.1)	
	계		641(100.0)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다중비교를 통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와 헤어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1)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자기애성향은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외현적 자기애성향으로 구분하여 측정을 하였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내현적자기애 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 총 45문항 중 27문항을 본 연구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외현적 자기애성향은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척도 3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분법적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적 자기애 성격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표 2>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평균 79.39점이었으며, 외현적 자기애성향은 최소 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분포하며 평균 11.96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김유성(2011)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평균 72.7, 외현적 자기애성향은 평균 14.8로, 본 연구대상자들은 김유성의 연구 결과보다는 내현적 성향이 강하며, 외현적 성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Cronbach's Alpha 신뢰도는 .936이며, 외현적 자기애성향의 Cronbach's Alpha 신뢰도는 .870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표 2> 내·외현적 자기에성향의 분포 및 검사지의 신뢰도

자기에성향	문항수	척도	Cronbach's Alpha	집수분포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내현적 자기에성향	27	5점 Likert 척도	.936	31	124	79.39	16.81
외현적 자기에성향	32	이분법적 척도	.870	0	30	11.96	6.58

2) 신체존중감

신체존중감 척도 18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요인에 적합하지 않는 4개 문항(10번, 12번, 15번, 16번)을 제외한 14개의 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3>과 같이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건강, 질병, 체력에 관한 내용이며 체기능존중감으로 명명 하였다. 요인부하량은 0.660 이상이고 모두 8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때 고유치는 4.632이고 전체변량은 33.088%였다. 요인 2는 체형, 모습에 관한 내용이며 외모 존중감이라 명명하였다. 요인부하량은 0.799 이상이고 모두 4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때 고유치는 3.247이고 전체변량은 23.193%였다. 요인 3은 몸무게에 관한 내용이며 체중만족감이라 명명하였다. 요인부하량은 0.837 이상이고 모두 2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때 고유치는 1.847이고 전체변량은 13.190%였다. 각 변인의 Cronbach's Alpha(α) 신뢰도는 .899, .879, .825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신체존중감은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의 3개 요인으로 결정되었다. 처음에 설정하였던 체중존중감은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체중만족감으로 바꾸어 명명하였다.

<표 3> 신체존중감의 요인분석

요인 1. 체기능존중감		요인부하량
1	나는 남들에 비해 건강한 편이다.	.827
3	나는 몸이 약한 편이다.(R)	-.789
5	내 몸은 보통사람만큼은 건강하다.	.736
7	다른 사람들은 나를 건강하다고 한다.	.729
9	내 몸에는 아픈 곳이 많다.(R)	-.731
11	나는 쉽게 질병에 걸리는 타입이다.(R)	-.747
13	나의 몸은 건강하다.	.802
17	나는 체력에 자신있다.	.660
고유치=4.632 전체변량(%)=33.088 누적변량(%)=33.088 α 신뢰도=.899		
요인 2. 외모존중감		요인부하량
2	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799
4	나는 남들에 비해 예쁜/멋있는 외모를 가졌다.	.821
6	나는 나의 외모가 자랑스럽다.	.853
8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예쁘다/멋있다.	.818
고유치=3.247 전체변량(%)=23.193 누적변량(%)=56.281 α 신뢰도=.879		
요인 3. 체중만족감		요인부하량
14	나는 내 몸무게를 생각하면 우울하다.(R)	-.837
18	나는 똥똥한 것 같아(마른 것같아) 창피하다.(R)	-.870
고유치=1.847 전체변량(%)=13.190 누적변량(%)=69.471 α 신뢰도=.825		

R : 역산문항

3) 뷰티관리

뷰티관리 25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요인에 적합하지 않는 7개 문항(7번, 8번, 11번, 14번, 21번, 22번, 24번)을 제외한 17개 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4>와 같이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메이크업연출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0.614 이상이고 모두 4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때 고유치는 2.672이고 전체변량은 15.715%였다. 요인 2는 성형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0.545 이상이고 모두 4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때 고유치는 2.166이고 전체변량은 12.740%였다. 요인 3은 헤어연출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0.597 이상이고 모두 3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때 고유치는 1.911이고 전체변량은 11.244%였다. 요인 4는 피부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0.699 이상이고 모두 3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때 고유치는 1.898이고 전체변량은 11.163%였다. 요인 5는 몸매관리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0.461 이상이고 모두 3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때 고유치는 1.863이고 전체변량은 10.960%였다.

각 변인의 Cronbach's Alpha 신뢰도는 .786, .713, .708, .676, .637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뷰티 관여도는 5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특성을 나타내는 중심적인 개념에 따라서 도출된 5개의 요인에 '메이크업연출', '성형관리',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 라고 명명하였다.

<표 4> 뷰티관리의 요인분석

요인 1. 메이크업연출		요인부하량
3	나는 눈썹을 자주 정리하거나 눈썹문신을 하고 있다.	.614
13	아이섀도, 볼터치 등 다양한 색조화장을 즐겨 한다.	.777
18	최신 유행 패턴이나 색상으로 화장을 한다.	.710
23	유행하는 색조화장품을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편이다.	.726
고유치=2.672 전체변량(%)=15.715 누적변량(%)=15.715 α 신뢰도=.786		
요인 2. 성형관리		요인부하량
5	나는 더 나은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도 생각해 본다.	.545
15	나는 눈밑의 주름, 처짐의 제거 수술을 받거나 받고 싶다.	.654
20	나는 레이저시술로 기미, 주근깨를 없애거나 없애고 싶다.	.809
25	나는 몸이나 얼굴의 점을 빼고 싶다.	.776
고유치=2.166 전체변량(%)=12.740 누적변량(%)=28.455 α 신뢰도=.713		
요인 3. 헤어연출		요인부하량
2	외출시 메이크업은 못해도 머리는 꼭 만진다.	.833
12	나는 머리염색, 모발관리 등으로 머리모양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편이다.	.597
17	평상시 헤어 드라이기나 매직기로 헤어스타일을 연출한다.	.729
고유치=1.911 전체변량(%)=11.244 누적변량(%)=39.699 α 신뢰도=.708		
요인 4. 피부관리		요인부하량
1	피부 관리를 위해 기능성 화장품(수분, 주름, 미백, 아이크림 등)을 즐겨 바른다.	.762
6	피부 관리를 위해 각질제거나 팩 제품을 주기적으로 사용한다.	.699
16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 세안제품을 선택한다.	.716
고유치=1.898 전체변량(%)=11.163 누적변량(%)=50.862 α 신뢰도=.676		
요인 5. 몸매관리		요인부하량
4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저칼로리식품을 골라 먹는다.	.800
9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이 찌는 식품은 안 먹는다.	.843
19	몸매를 가꾸기 위해 체형 보정용 속옷(브라지어, 코르셋)을 입고 다닌다.	.461
고유치=1.863 전체변량(%)=10.960 누적변량(%)=61.822 α 신뢰도=.637		

4) 헤어행동

헤어행동 25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최소 고유치 1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요인에 적합하지 않는 7개 문항(2번, 7번, 10번, 11번, 22번, 23번, 24번)을 제외한 18개 문항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5>과 같이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헤어대인지향성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0.549 이상이고 모두 7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때 고유치는 3.331이고 전체변량은 19.596%였다. 요인 2는 헤어개성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0.739 이상이고 모두 3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때 고유치는 2.069이고 전체변량은 12.173%였다. 요인 3은 헤어동조성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0.638 이상이고 모두 3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때 고유치는 1.989이고 전체변량은 11.699%였다. 요인 4는 헤어일관성에 관한 내용이며, 요인부하량은 0.568 이상이고 모두 4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이때 고유치는 1.920이고 전체변량은 11.296%였다. 각 변인의 Cronbach's Alpha 신뢰도는 .750, .722, .679, .625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헤어행동 4개 요인을 각각 헤어대인지향성, 헤어개성, 헤어동조성, 헤어일관성이라 명명하였다. 처음에 설정하였던 헤어대인지향성, 헤어심미성은 2개의 변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어,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변인을 통합하여 헤어대인지향성이라 명명하였고 헤어항상성 요인은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헤어일관성으로 바꾸어 명명하였다.

<표 5> 헤어행동의 요인분석

요인 1. 헤어대인지향성		요인부하량
1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는 것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다.	.669
3	나는 의복과 맞추어 헤어스타일 등의 조화에 신경 쓰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753
6	나는 나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583
8	나는 상황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조화롭다고 생각한다.	.724
13	나는 나 자신이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732
16	사람들과 사귀는 데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이 도움이 된다.	.659
18	나의 헤어스타일이 좋지 못할 때 외출하기가 꺼려진다.	.549
고유치=3.331 전체변량(%)=19.596 누적변량(%)=19.596 α 신뢰도=.750		
요인 2. 헤어개성		요인부하량
4	나는 나만의 강렬한 컬러나 대담한 헤어스타일을 좋아한다.	.804
9	나는 눈에 띄는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하는 편이다.	.789
19	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때 남을 의식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한 헤어스타일이 좋다.	.739
고유치=2.069 전체변량(%)=12.173 누적변량(%)=31.769 α 신뢰도=.722		
요인 3. 헤어동조성		요인부하량
12	모임에 가서 내 헤어스타일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불안해진다.	.741
17	내가 속한 집단의 헤어스타일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657
21	주위사람의 반응을 고려해 과감한 헤어스타일을 하지 못한다.	.638
고유치=1.989 전체변량(%)=11.699 누적변량(%)=43.467 α 신뢰도=.679		
요인 4. 헤어일관성		요인부하량
5	내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고수한다.	.572
15	유행에 따르기보다 늘 하던 대로 머리를 한다.	.568
20	나는 한 미용실만을 선택해서 가는 편이다.	.792
25	나는 한 헤어디자이너에게 머리를 하는 편이다.	.722
고유치=1.920 전체변량(%)=11.296 누적변량(%)=54.763 α 신뢰도=.625		

2.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의 차이

1)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기애성향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령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자기애성향은 내현적 자기애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미혼인 여성들의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여부에 따라서는 외현적 자기애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5$), 직업이 있는 여성들이 외현적 자기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자기애성향은 외현적 자기애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1$), 대졸 이상 여성들의 외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은혜(2012)의 연구에서도 미혼이 기혼보다 자기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치된 결과를 보였고,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외현적 자기애성향이 높게 나타난 김종욱(2010)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개인소득에 따른 자기애성향은 내현적 자기애성향($p < .01$)과 외현적 자기애성향($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월평균개인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150-200만원인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외현적 자기애성향은 300만원 이상인 여성들의 외현적 자기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은혜(2012)의 연구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자기애성향의 경우 상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중’, ‘하’ 집단의 응답자들보다 자기애성향이 높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었다. 한국사회의 25~39세의 여성 가운데 미혼여성의 비율이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한국이 OECD가입 국가 중 미혼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TV 조선, 2013)는 보고되고 있는데, 여권 상승과 고학력, 고소득의 미혼 전문직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자기애와 자존감이 강한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6>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자기애성향의 차이

(N=641)

인구통계적 특성		자기애성향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성향
전체			79.39	11.96
연령	20대		80.20	12.67
	30대		81.10	12.17
	40대		78.17	11.46
	50대 이상		78.12	11.58
		<i>F</i>	1.272	1.152
결혼 여부	기혼		78.24	12.17
	미혼		81.09	11.65
		<i>t</i>	-2.105*	.996
직업	유		78.97	12.37
	무		80.42	10.97
		<i>t</i>	-.989	2.447*
학력	고졸이하		82.47	9.41 ^a
	대졸		78.69	12.48 ^b
	대학원졸		79.17	12.59 ^b
		<i>F</i>	2.272	10.290***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83.48 ^c	10.35 ^a
	100-150만원 미만		81.15 ^{bc}	10.04 ^a
	150-200만원 미만		82.12 ^c	10.50 ^a
	200-300만원 미만		79.42 ^{bc}	12.03 ^{ab}
	300-400만원 미만		79.61 ^{bc}	13.17 ^b
	400-500만원 미만		76.54 ^{ab}	13.73 ^b
	500만원 이상		73.97 ^a	13.40 ^b
		<i>F</i>	3.326**	5.193***

* p<.05 ** p<.01 *** p<.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기애성향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기애성향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외모관리비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성향($p<.05$)과 외현적 자기애성향($p<.001$)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외모관리비가 20만원 미만인 여성들이 높았으며, 외현적 자기애성향은 외모관리비가 30만원 이상인 여성들이 높아, 외모관리비가 많을수록 외현적 자기애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양은진 외(2009)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탈피한 자기애 성향이 강한 여성은 사회 활동에 전념하고 결혼이나 아이보다는 사회적인 성공과 명예를 우선 가치로 두며, 뷰티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 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심이 외모관리비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여진다.

운동여부에 따른 자기애성향은 내현적 자기애성향($p<.01$)과 외현적 자기애성향($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운동을 하는 여성들은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낮으며 외현적 자기애성향은 높게 나타났다.

음주여부에 따른 자기애성향은 외현적 자기애($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음주를 하는 여성들의 외현적 자기애성향이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흡연여부에 따른 자기애성향은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외현적 자기애성향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정도에 따른 자기애성향은 외현적 자기애성향($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의 외현적 자기애성향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적 자기애자들의 자기평가가 긍정적이며 자존감이 높고 우울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건강한 성향(김유성, 2011)에 기인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

<표 7>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기에성향의 차이

(N=641)

개인적 특성		자기에성향	
		내현적 자기에성향	외현적 자기에성향
전체		79.39	11.96
외모관리비	10만원 미만	81.10 ^b	9.94 ^a
	10-20만원 미만	81.14 ^b	10.70 ^a
	20-30만원 미만	78.99 ^{ab}	12.70 ^{ab}
	30-50만원 미만	74.43 ^a	14.77 ^b
	50-70만원 미만	75.74 ^{ab}	15.12 ^b
	70만원 이상	78.45 ^{ab}	16.24 ^b
	<i>F</i>	2.541*	12.848***
운동	유	77.89	12.45
	무	82.76	10.85
	<i>t</i>	-3.415**	2.859**
음주	유	80.20	12.71
	무	78.52	11.16
	<i>t</i>	1.263	3.001**
흡연	유	81.93	13.15
	무	79.02	11.79
	<i>t</i>	1.265	1.450
다이어트	꾸준히 하고 있다	77.29	13.68 ^d
	가끔 하고 있다	77.78	12.53 ^{cd}
	하다 안하다 한다	81.57	11.07 ^{bc}
	거의 하지 않는다	81.49	10.51 ^{ab}
	전혀 하지 않는다	80.38	8.97 ^a
	<i>F</i>	2.220	7.550***

* p<.05 ** p<.01 *** p<.001, 문자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2)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존중감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존중감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총 신체존중감은 평균 3.14이며, 그 하위요인 중 체기능존중감은 평균 3.25, 외모존중감은 평균 2.96, 체중만족감은 평균 3.20으로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비교적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존중감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존중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 총 신체존중감은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종옥(2010)의 연구에서 신체만족도와 연령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조인철(1998), 김완석(2007)의 연구에서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체기능존중감과 상관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이재주(2011)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신체적 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건강은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40대, 30대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신체존중감에 대한 여러 연구(Mintz & Betz, 1986; Franzoi & Shields, 1984; Barak etc, 1998)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비율이 57.2%를 차지하는 이재주의 연구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라 유추된다.

직업여부에 따른 신체존중감 중 체기능존중감($p < .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여성보다는 직업이 있는 여성들의 체기능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신체존중감 중 체기능존중감($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이 대졸이거나 대학원졸인 여성들의 체기능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신체만족도가 높다는 김종옥(2010)의 연구와 전문대 이상이 고졸보다 신체자신감이 높게 나온 이영분(201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개인소득에 따른 신체존중감은 외모존중감($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모존중감은 월평균개인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여성들의 외모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8>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존중감의 차이

(N=641)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존중감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	총 신체존중감
전체			3.25	2.96	3.20	3.14
연령	20대		3.30	3.01	3.21	3.17
	30대		3.24	2.98	3.12	3.11
	40대		3.26	2.96	3.24	3.15
	50-60대		3.21	2.89	3.24	3.12
	<i>F</i>		.390	.768	.519	.362
결혼 여부	기혼		3.28	3.01	3.23	3.17
	미혼		3.22	2.89	3.16	3.09
	<i>t</i>		1.014	1.916	.861	1.679
직업	유		3.29	2.97	3.22	3.16
	무		3.15	2.92	3.16	3.08
	<i>t</i>		2.258*	.820	.594	1.542
학력	고졸이하		3.02 ^a	2.84	3.25	3.03
	대졸		3.31 ^b	2.99	3.20	3.17
	대학원졸		3.28 ^b	2.91	3.13	3.10
	<i>F</i>		7.205**	2.065	.291	2.159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3.08	2.85 ^{ab}	3.30	3.08
	100-150만원 미만		3.30	2.79 ^a	3.23	3.11
	150-200만원 미만		3.23	2.96 ^{ab}	3.09	3.09
	200-300만원 미만		3.26	2.86 ^{ab}	3.18	3.10
	300-400만원 미만		3.31	3.04 ^b	3.20	3.18
	400-500만원 미만		3.19	3.08 ^b	3.23	3.17
	500만원 이상		3.38	3.10 ^b	3.24	3.24
	<i>F</i>		1.373	2.243***	.401	.810

* p<.05 **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존중감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존중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외모관리비에 대한 신체존중감은 체기능존중감(p<.05)과 외모존중감(p<.001), 총 신체존중감(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체기능존중감과 총 신체존중감은 외모관리비가 월 30만원 이상인 여성들이 높았으며, 외모존중감은 외모관리비가 50만원 이상인 여성들이 높게 나타났다. 외모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경제적 여유도 있겠지만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욕구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상적인 외모를 위한 투자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 또한 높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운동여부에 따른 신체존중감은 체기능존중감($p<.01$), 외모존중감($p<.01$), 총 신체존중감($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운동을 하는 여성들의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및 총 신체존중감이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백원철, 김수겸, 2004; 오주훈, 조만태, 2000)를 지지해주고 있으며, 신체적 자신감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용우, 2005; 정덕조, 2006; 표내숙, 김동주, 박종태, 2000)는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음주여부에 따른 신체존중감은 체기능존중감($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음주를 하는 여성들의 체기능존중감이 음주를 하지 않는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흡연여부에 따른 신체존중감은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 총 신체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정도에 따른 신체존중감은 체기능존중감($p<.001$), 외모존중감($p<.01$), 체중만족감($p<.001$), 총 신체존중감($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체기능존중감은 전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가장 낮았으며, 외모존중감은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는 여성들이 높았고, 체중만족감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가장 높았다. 다이어트 비실행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다이어트 실행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효정 외(2010)의 연구와 다이어트 실행집단은 자신의 체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허은실 외(2003)의 연구에서도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체중조절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표 9> 개인적 특성에 따른 신체존중감의 차이

(N=641)

개인적 특성		신체존중감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	총 신체존중감
전체		3.25	2.96	3.20	3.14
외모 관리비	10만원 미만	3.11 ^a	2.79 ^a	3.24	3.04 ^a
	10-20만원 미만	3.31 ^{ab}	2.88 ^{ab}	3.13	3.11 ^{ab}
	20-30만원 미만	3.21 ^{ab}	2.98 ^{ab}	3.18	3.12 ^{ab}
	30-50만원 미만	3.38 ^b	3.18 ^{ab}	3.30	3.29 ^b
	50-100만원 미만	3.39 ^b	3.28 ^b	3.32	3.33 ^b
	100만원 이상	3.40 ^b	3.30 ^b	3.12	3.28 ^b
	<i>F</i>	2.512*	5.958***	.514	2.703*
운동	유	3.31	3.03	3.25	3.20
	무	3.12	2.81	3.09	3.01
	<i>t</i>	3.056**	3.374**	1.860	3.634***
음주	유	3.36	3.01	3.16	3.18
	무	3.14	2.90	3.24	3.10
	<i>t</i>	3.705***	1.751	-1.015	1.608
흡연	유	3.27	2.93	3.02	3.07
	무	3.25	2.96	3.23	3.15
	<i>t</i>	.144	-.284	-1.667	-.987
다이어트	꾸준히 하고 있다	3.32 ^b	3.09 ^b	3.22 ^b	3.21 ^b
	가끔 하고 있다	3.33 ^b	3.07 ^b	3.26 ^b	3.22 ^b
	하다 안하다 한다	3.24 ^b	2.81 ^a	2.90 ^a	2.98 ^a
	거의 하지 않는다	3.24 ^b	2.90 ^{ab}	3.53 ^{bc}	3.22 ^b
	전혀 하지 않는다	2.74 ^a	2.80 ^a	3.72 ^c	3.09 ^{ab}
	<i>F</i>	5.733***	4.538**	9.294***	4.805**

* p<.05 ** p<.01 *** p<.0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3)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뷰티관리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뷰티관리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다. 총 뷰티관리는 평균 2.9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로는 메이크업연출은 평균 2.66, 성형관리는 평균 3.11, 헤어연출은 평균 3.13, 피부관리는 평균 3.54, 몸매관리는 평균 2.41로 조사되

어 피부관리가 가장 높았으며, 메이크업 연출, 몸매관리는 비교적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뷰티관리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뷰티관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연령에 따른 뷰티관리 중 성형관리($p<.01$), 헤어연출($p<.01$), 몸매관리($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형관리는 20대가 낮았고, 헤어연출, 몸매관리는 50-6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 30대 집단이 40대, 50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외모관리행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서은혜(2014)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고, 미용관리 행동 중 체중·몸매관리와 헤어행동에서 40대, 50대 집단이 20대, 30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김유성(2010)의 연구와는 일치하였다.

결혼여부에 따른 뷰티관리 중에서 성형관리($p<.001$), 헤어연출($p<.05$), 몸매관리($p<.001$), 전체적인 뷰티관리($p<.001$)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형관리, 헤어연출, 몸매관리, 총 뷰티관리는 미혼여성보다 기혼여성의 관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뷰티관리 중에서 메이크업연출($p<.01$)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메이크업연출은 대졸여성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개인소득에 따른 뷰티관리 중 메이크업연출($p<.01$), 성형관리($p<.05$), 헤어연출($p<.01$), 피부관리($p<.01$), 몸매관리($p<.001$), 총 뷰티관리($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형관리는 월평균 개인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여성이 가장 높았으며, 메이크업연출,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 총 뷰티관리는 월평균 개인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류층이 외모관리 비용이 높게 나타난 김유성(2011), 이은실(201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의 정도가

높다고 한 김수경, 한동조(2008)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표 10>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뷰티관리의 차이

(N=641)

인구통계적 변인		뷰티관리	메이크업 연출	성형관리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	총 뷰티관리
전체			2.66	3.11	3.13	3.54	2.41	2.97
연령	20대		2.72	2.87 ^a	3.12 ^a	3.60	2.16 ^a	2.89
	30대		2.72	3.20 ^b	3.00 ^a	3.60	2.45 ^{bc}	2.99
	40대		2.57	3.15 ^b	3.10 ^a	3.50	2.42 ^b	2.95
	50-60대		2.64	3.22 ^b	3.32 ^b	3.45	2.59 ^c	3.04
	<i>F</i>		1.217	5.882**	4.172**	1.672	9.309***	2.045
결혼여부	기혼		2.71	3.21	3.19	3.54	2.54	3.04
	미혼		2.59	2.96	3.05	3.55	2.21	2.87
	<i>t</i>		1.856	3.641***	2.117*	-.177	5.749***	3.708***
직업	유		2.68	3.10	3.15	3.57	2.37	2.97
	무		2.61	3.15	3.09	3.46	2.49	2.96
	<i>t</i>		1.064	-.655	.789	1.771	-1.850	.307
학력	고졸이하		2.50 ^a	3.10	3.14	3.41	2.41	2.91
	대졸		2.73 ^b	3.11	3.16	3.56	2.40	2.99
	대학원졸		2.47 ^a	3.12	2.98	3.61	2.43	2.92
	<i>F</i>		5.160**	.008	1.201	2.166	.034	1.113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		2.45 ^a	2.83 ^a	2.95 ^a	3.37 ^a	2.17 ^{ab}	2.75 ^a
	100-150만원 미만		2.53 ^{ab}	2.98 ^{ab}	2.93 ^a	3.37 ^a	2.10 ^a	2.78 ^b
	150-200만원 미만		2.50 ^{ab}	3.11 ^{bc}	3.14 ^{ab}	3.54 ^{ab}	2.35 ^{bc}	2.93 ^{ab}
	200-300만원 미만		2.67 ^{abc}	3.15 ^{bc}	3.02 ^a	3.54 ^{ab}	2.38 ^{bc}	2.95 ^{ab}
	300-400만원 미만		2.75 ^{bc}	3.08 ^{abc}	3.17 ^{ab}	3.45 ^a	2.48 ^{cd}	2.99 ^{ab}
	400-500만원 미만		2.81 ^c	3.23 ^{bc}	3.29 ^b	3.71 ^b	2.70 ^d	3.15 ^b
	500만원 이상		2.89 ^c	3.30 ^c	3.39 ^b	3.72 ^b	2.55 ^{cd}	3.17 ^b
	<i>F</i>		3.565**	2.540*	3.655**	3.399**	6.607***	6.843***

* p<.05 ** p<.01 *** p<.001, 문자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뷰티관리

개인적 특성에 따른 뷰티관리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외모관리비에 따른 뷰티관리는 메이크업연출($p<.001$), 성형관리($p<.05$), 헤어연출($p<.001$), 피부관리($p<.001$), 몸매관리($p<.001$), 총 뷰티관리($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메이크업연출은 월평균 외모관리비가 50만원 이상인 여성이 높았으며, 성형관리는 외모관리비가 70만원 이상인 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헤어연출은 외모관리비가 20만원 이상인 여성이 2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피부관리, 몸매관리는 외모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여성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 뷰티관리에서는 외모관리비가 70만원 이상인 여성이 뷰티관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여부에 대한 뷰티관리는 메이크업연출($p<.001$)과 헤어연출($p<.05$), 피부관리($p<.001$), 몸매관리($p<.001$), 총 뷰티관리($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운동을 하는 여성들의 메이크업연출과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 및 총 뷰티관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강증진 행위정도가 높을수록 피부관리 인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향숙 외, 2007; 전연숙 외, 2008)와 운동과 같은 신체적 건강증진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체형관리에 의한 외모관리를 더 많이 한다는 이은실(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음주여부에 대한 뷰티관리는 메이크업연출($p<.001$)과 헤어연출($p<.01$), 피부관리($p<.05$), 총 뷰티관리($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음주를 하는 여성들의 메이크업연출과 헤어연출, 피부관리 및 총 뷰티관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흡연여부에 대한 뷰티관리는 메이크업연출($p<.05$), 성형관리($p<.01$), 헤어연출($p<.05$), 피부관리($p<.05$), 몸매관리($p<.001$), 총 뷰티관리($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흡연을 하는 여성들의 메이크업연출과 성형관리, 헤어연

출, 피부관리, 몸매관리, 총 뷰티관리가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홍인옥(2011)의 흡연, 음주, 운동, 비만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흡연자와 음주자는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허정록 외(2012)의 연구에서는 미용요법 프로그램 실시 후 우울증이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뷰티관리는 흡연자와 음주자의 심리적 안정과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인 정신건강측면의 치료효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신건강측면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다이어트 정도에 대한 뷰티관리는 메이크업연출(p<.001), 헤어연출(p<.001), 피부관리(p<.001), 몸매관리(p<.001), 총 뷰티관리(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메이크업 연출,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 및 총 뷰티관리는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1> 개인적 특성에 따른 뷰티관리 차이

(N=641)

개인적 특성	뷰티관리	메이크업 연출	성형관리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	총 뷰티관리
전체		2.66	3.11	3.13	3.54	2.41	2.97
외모 관리비	10만원 미만	2.23 ^a	2.97 ^a	2.87 ^a	3.19 ^a	2.08 ^a	2.67 ^a
	10-20만원 미만	2.59 ^b	3.11 ^a	3.01 ^{ab}	3.65 ^b	2.42 ^b	2.95 ^b
	20-30만원 미만	2.82 ^{bc}	3.15 ^a	3.36 ^c	3.62 ^b	2.47 ^b	3.08 ^{bc}
	30-50만원 미만	2.94 ^c	3.15 ^a	3.36 ^c	3.70 ^b	2.51 ^b	3.13 ^{bc}
	50-70만원 미만	3.21 ^d	3.21 ^{ab}	3.26 ^b	3.66 ^b	2.55 ^b	3.18 ^c
	70만원 이상	3.32 ^d	3.50 ^b	3.54 ^c	3.78 ^b	3.29 ^c	3.49 ^d
	<i>F</i>	20.365***	2.250*	9.451***	11.001***	16.013***	19.693***
운동	유	2.76	3.13	3.19	3.62	2.52	3.04
	무	2.44	3.06	3.01	3.37	2.16	2.81
	<i>t</i>	4.477***	.897	2.448*	4.020***	5.616***	4.874***
음주	유	2.83	3.16	3.22	3.61	2.45	3.05
	무	2.49	3.06	3.04	3.46	2.35	2.88
	<i>t</i>	5.227***	1.540	2.662**	2.564*	1.654	3.895***
흡연	유	2.90	3.40	3.36	3.70	2.72	3.21
	무	2.63	3.07	3.10	3.52	2.36	2.94

	<i>t</i>	2.308*	3.257**	2.578*	2.052*	3.219***	3.429**
다이어트	꾸준히 하고 있다	2.82 ^b	3.18	3.26 ^b	3.76 ^d	2.62 ^c	3.13 ^c
	가끔 하고 있다	2.83 ^b	3.14	3.30 ^b	3.59 ^{cd}	2.62 ^c	3.10 ^c
	하다 안하다 한다	2.61 ^b	3.10	3.07 ^{ab}	3.47 ^{bc}	2.32 ^b	2.91 ^b
	거의 하지 않는다	2.29 ^a	3.01	2.84 ^a	3.22 ^a	1.99 ^a	2.67 ^a
	전혀 하지 않는다	2.31 ^a	2.89	2.88 ^a	3.28 ^{ab}	1.79 ^a	2.63 ^a
	<i>F</i>	9.269***	1.283	6.104***	10.498***	21.628***	16.122***

* p<.05 ** p<.01 *** p<.001, 문자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4)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헤어행동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헤어행동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 <표 13>과 같다. 헤어대인지향성은 평균 3.48, 헤어개성은 평균 2.55, 헤어동조성은 평균 2.59, 헤어일관성은 평균 3.38이며, 총 헤어행동은 평균 3.00으로 보통수준이었다. 헤어행동은 헤어대인지향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헤어개성과 헤어동조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행동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연령에 따른 헤어행동 중에서 헤어동조성(p<.001), 헤어일관성(p<.001), 총 헤어행동(p<.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헤어동조성의 헤어행동은 50대 이상의 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은 여성은 헤어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게 꾸미려는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헤어일관성은 40대,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자신의 스타일에서 변화 주기를 싫어하는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총 헤어행동은 20대보다는 40대, 50대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헤어대인지향이 다른 요인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결혼여부에 따른 헤어행동 중에서 헤어개성($p < .05$), 헤어동조성($p < .001$), 헤어일관성($p < .001$), 총 헤어행동($p < .001$)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혼의 여성보다 기혼의 여성들이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더욱 개성적으로 하고자 하며, 유행에 따라 자신의 꾸미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혼여성의 헤어행동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회 구성원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 형성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사료된다.

직업에 따라서는 헤어일관성에서 직업이 없는 대상자들의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p < .05$).

학력에 따른 헤어행동은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노선옥(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

월평균 개인소득에 따른 헤어행동은 헤어개성($p < .05$), 헤어동조성($p < .05$), 총 헤어행동($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헤어개성은 개인소득이 400-500만원인 여성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헤어동조성은 300만원 이상인 대상자들이 높게 나타났다. 총 헤어행동은 100-150만원 미만이 가장 낮았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헤어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헤어행동의 평균을 비교할 때 여성들은 헤어대인지향성의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 헤어일관성,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및 화장동기의 관계 연구에서 헤어행동에 있어 대인지향이 가장 높게 나타난 노선옥(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개성지향은 연령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평균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는 무관하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개성적인 독특한 헤어스타일보다는 남을 의식하며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헤어행동의 차이

(N=641)

헤어행동		헤어 대인지향성	헤어개성	헤어동조성	헤어일관성	총 헤어행동
인구 통계적 변인	전체	3.48	2.55	2.59	3.38	3.00
연령	20대	3.48	2.46	2.42 ^a	3.18 ^a	2.88 ^a
	30대	3.46	2.55	2.57 ^b	3.29 ^a	2.97 ^{ab}
	40대	3.46	2.58	2.63 ^{bc}	3.46 ^b	3.03 ^b
	50대이상	3.54	2.62	2.74 ^c	3.60 ^b	3.12 ^c
	<i>F</i>	.605	1.227	6.037***	12.724***	9.833***
결혼 여부	기혼	3.49	2.61	2.70	3.48	3.07
	미혼	3.48	2.46	2.42	3.25	2.90
	<i>t</i>	.298	2.535*	5.126***	4.291***	5.164***
직업	유	3.50	2.57	2.57	3.35	2.99
	무	3.46	2.51	2.65	3.47	3.02
	<i>t</i>	.772	.772	-1.435	-2.027*	-.771
학력	고졸이하	3.38	2.63	2.69	3.47	3.04
	대졸	3.52	2.55	2.56	3.36	3.00
	대학원졸	3.42	2.43	2.63	3.42	2.98
	<i>F</i>	2.846	1.394	1.692	1.438	.744
개인 소득	100만원 미만	3.46	2.38 ^a	2.53 ^{ab}	3.36	2.92 ^{ab}
	100-150만원 미만	3.33	2.46 ^a	2.42 ^a	3.32	2.88 ^a
	150-200만원 미만	3.43	2.56 ^{ab}	2.53 ^{ab}	3.39	2.98 ^{abc}
	200-300만원 미만	3.52	2.44 ^a	2.56 ^{ab}	3.33	2.96 ^{abc}
	300-400만원 미만	3.46	2.57 ^{ab}	2.66 ^b	3.40	3.02 ^{bcd}
	400-500만원 미만	3.54	2.79 ^b	2.68 ^b	3.31	3.08 ^{cd}
	500만원 이상	3.62	2.61 ^{ab}	2.74 ^b	3.58	3.14 ^d
<i>F</i>	1.925	2.684*	2.197*	1.733	3.854**	

* p<.05 ** p<.01 *** p<.001, 문자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헤어행동

개인적 특성에 따른 헤어행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외모관리비에 따른 헤어행동은 헤어대인지향성($p<.01$), 헤어개성($p<.001$), 헤어동조성($p<.01$), 총 헤어행동($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헤어대인지향성은 외모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대상자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헤어개성은 외모관리비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외모관리비가 70만원 이상인 대상자들은 가장 높은 헤어개성 수준을 나타냈고, 헤어동조성은 외모관리비가 70만원 이상인 경우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뷰티관리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높은 헤어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운동여부에 따라 헤어개성($p<.01$), 헤어동조성($p<.01$), 총 헤어행동($p<.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헤어개성과 헤어동조성, 총 헤어행동은 일주일동안 운동을 하는 대상자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들보다 헤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여부에 따른 헤어행동 중에서 헤어대인지향성($p<.05$), 헤어개성($p<.01$), 총 헤어행동($p<.05$)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헤어대인지향성, 헤어개성, 총 헤어행동의 경우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여성보다는 음주를 하는 여성들의 헤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에 따른 헤어행동은 헤어개성($p<.01$), 헤어동조성($p<.01$, $p<.05$), 총 헤어행동($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헤어개성, 헤어동조성, 총 헤어행동의 경우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 여성보다는 흡연을 하는 여성들의 헤어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에 따른 헤어행동은 헤어대인지향성($p<.05$), 헤어개성($p<.001$), 헤어일관성($p<.01$), 총 헤어행동($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헤어대인지향성과 헤어개성, 총 헤어행동은 비교적 다이어트를 하는 대상자들의 헤어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헤어일관성은 다이어트를 전혀 하지 않는 대상자들의 헤어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옥수 외(2001), 고대식 외(2013)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 심리적

인 안정을 얻기 위해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김효정 외 (2010)는 체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다이어트를 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정경숙, 서경현(2002)은 미용실을 자주 이용하고 헤어에 만족하는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헤어에 대한 만족이 정신건강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음주, 흡연, 다이어트 경험자의 부정적인 감정과 인식이 헤어행동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표 13> 개인적 특성에 따른 헤어행동의 차이

(N=641)

개인적 특성		헤어 행동 대인지향성	헤어개성	헤어동조성	헤어일관성	총 헤어행동
전체		3.48	2.55	2.59	3.38	3.00
외모 관리비	10만원 미만	3.34 ^a	2.32 ^a	2.54 ^a	3.43	2.91 ^a
	10-20만원 미만	3.48 ^{ab}	2.48 ^{ab}	2.60 ^a	3.36	2.98 ^{ab}
	20-30만원 미만	3.56 ^b	2.65 ^b	2.49 ^a	3.36	3.02 ^{ab}
	30-50만원 미만	3.58 ^b	2.64 ^b	2.64 ^a	3.35	3.05 ^{ab}
	50-70만원 미만	3.50 ^{ab}	2.76 ^b	2.73 ^a	3.35	3.09 ^b
	70만원 이상	3.63 ^b	3.28 ^c	3.07 ^b	3.53	3.38 ^b
	<i>F</i>	3.334**	9.773***	4.022**	.563	7.423***
운동	유	3.52	2.61	2.64	3.38	3.04
	무	3.42	2.41	2.48	3.40	2.93
	<i>t</i>	1.946	2.983**	2.700**	-.387	3.072**
음주	유	3.53	2.63	2.62	3.37	3.04
	무	3.44	2.46	2.56	3.40	2.97
	<i>t</i>	1.998*	2.758**	1.081	-.676	2.184*
흡연	유	3.60	2.85	2.74	3.48	3.17
	무	3.47	2.51	2.57	3.37	2.98
	<i>t</i>	1.854	3.197**	2.093*	1.451	3.892***
다이어트	꾸준히 하고 있다	3.59 ^b	2.67 ^b	2.61	3.48 ^{ab}	3.09 ^c
	가끔 하고 있다	3.51 ^b	2.69 ^b	2.63	3.33 ^a	3.04 ^{bc}
	하다 안하다 한다	3.42 ^{ab}	2.47 ^{ab}	2.61	3.27 ^a	2.94 ^{ab}
	거의 하지 않는다	3.39 ^a	2.27 ^a	2.50	3.44 ^{ab}	2.90 ^a
	전혀 하지 않는다	3.41 ^{ab}	2.38 ^a	2.43	3.58 ^b	2.95 ^{ab}
	<i>F</i>	2.748*	5.757***	1.124	3.421**	4.515**

* p<.05 ** p<.01 *** p<.001, 문자 a, b, c, d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사

3. 내·외현적 자기에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의 관계

1) 내·외현적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의 관계

내·외현적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과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체기능존중감($r=-.361$, $p<.001$), 외모존중감($r=-.406$, $p<.001$), 체중만족감($r=-.296$, $p<.001$), 총 신체존중감($r=-.528$, $p<.001$)과는 유의한 부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 및 총 신체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적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체기능존중감($r=.167$, $p<.001$), 외모존중감($r=.409$, $p<.001$), 체중만족감($r=.115$, $p<.001$), 총 신체존중감($r=.296$, $p<.001$)과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 외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 및 총 신체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의 상관관계에서는 외모존중감과의 부정적 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외현적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의 상관관계에서는 외모존중감과의 정적 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유성(2011), 신동주 외(2006)의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신체불만족과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14> 내·외현적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의 상관관계

(N=641)

신체존중감 자기에성향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	총 신체존중감
내현적 자기에성향	-.361***	-.406***	-.396***	-.528***
외현적 자기에성향	.167***	.409***	.115***	.298***

*** p<.001

2) 내·외현적 자기에성향과 뷰티관리의 관계

내·외현적 자기에성향과 뷰티관리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성향은 성형관리($r=.254, p<.001$)와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피부관리($r=-.134, p<.01$)는 유의한 부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형관리에는 강한 관리행동을 보이는 반면, 피부관리에는 낮은 관리행동을 나타내었다. Wink(1991)는 내현적 자기에성향자는 항상 불안하고 외상에 대해 취약하다고 하였으며, 권석만, 한수정(2000)은 우울하며, 과민하고, 소심하고 수줍어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향들이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나고 빠른 효과를 보기 위해 메이크업, 헤어, 피부관리보다는 성형관리를 선택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외현적 자기에성향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에서 외현적 자기에성향은 메이크업 연출($r=.336, p<.001$), 성형관리($r=.090, p<.05$), 헤어연출($r=.296, p<.001$), 피부관리($r=.273, p<.001$), 몸매관리($r=.227, p<.001$), 총 뷰티관리($r=.245, p<.001$)와는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 외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메이크업 연출, 성형관리,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 및 총 뷰티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에 성향과 외모관여도가

정적 관계를 보인 김해정(2008)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성형관리는 다른 요인에 비해 제일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김유성, 박옥련(2009)의 연구에서 자기에집단은 미용성형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Akhtar & Tomson(1982)는 외현적 자기에성향자들은 자기 과시적이고, 당당하고, 자신은 취약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유성(2011)은 자기평가가 긍정적이며 자존감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을수록 성형관리보다는 메이크업관리와 헤어연출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홍수남(2013)은 섹슈얼리티성향 중 자기주도형과 여성우월형이 높아지면 뷰티관심도는 상승되었다고 하였고, 자기주도형과 여성우월형은 사회적인 성공과 자기에와 자존감이 강한 진취적인 유형으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과 외적으로 수려한 이미지를 지향하기때문에 뷰티와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는 외모개선 의지가 뷰티관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표 15> 내·외현적 자기에성향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

(N=641)

뷰티관리 자기에성향	메이크업 연출	성형관리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	총 뷰티관리
내현적 자기에성향	-.031	.254***	-.067	-.134**	.053	.028
외현적 자기에성향	.336***	.090*	.296***	.273***	.227***	.345***

* p<.05 ** p<.01 *** p<.001

3) 내·외현적 자기에성향과 헤어행동의 관계

내·외현적 자기에성향과 헤어행동과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헤어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은 헤어동조성($r=.269, p<.001$), 총 헤어행동($r=.115, p<.05$)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동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는 대개 소심하고 수줍어하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 한다는 연구결과(권석만, 한수정, 2000)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 때문에 눈에 띄는 독특한 스타일이나 남과 다른 스타일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의 헤어스타일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외현적 자기애성향과 헤어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 외현적 자기애성향은 헤어대인지향성($r=.285, p<.001$), 헤어개성($r=.338, p<.001$)과 헤어일관성($r=.078, p<.05$)과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어, 외현적 자기애성향이 강한 여성일수록 헤어대인지향성, 헤어개성과 헤어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성향은 헤어개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외현적 자기애자들이 과장, 과시, 특권의식, 거만함이 외적으로 잘 드러난다고 한 Wink(199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표 16> 내·외현적 자기애성향과 헤어행동의 상관관계

(N=641)

헤어행동 자기애성향	헤어 대인지향성	헤어개성	헤어동조성	헤어일관성	총 헤어행동
내현적 자기애성향	.053	-.023	.269***	-.013	.115**
외현적 자기애성향	.285***	.338***	-.006	.078*	.291

* $p<.05$ ** $p<.01$ *** $p<.001$

4) 신체존중감과 뷰티관리의 관계

신체존중감과 뷰티관리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총 신체존중감과 총 뷰티관리의 상관관계는 $r=.091(p<.05)$ 로 비교적 낮은 정의 관계가 나타나 신체존중감이 높을수록 뷰티관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존중감과 뷰티관리의 각 하위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기능존중감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에서 체기능존중감은 메이크업연출($r=.109, p<.01$), 헤어연출($r=.080, p<.05$)에 대한 관리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성형관리($r=-.100, p<.05$)와는 유의한 부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체기능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메이크업연출과 헤어연출에 대한 관리는 높아지며, 성형관리는 낮아졌다.

외모존중감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에서 외모존중감은 메이크업연출($r=.309, p<.001$), 헤어연출($r=.253, p<.001$), 피부관리($r=.236, p<.001$), 몸매관리($r=.202, p<.001$), 총 뷰티관리($r=.246, p<.001$)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성형관리($r=-.116, p<.01$)와는 유의한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외모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메이크업연출,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 및 총 뷰티관리는 높아지며, 성형관리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만족감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에서 체중만족감은 헤어연출($r=.079, p<.05$), 피부관리($r=.081, p<.05$)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성형관리($r=-.257, p<.001$), 몸매관리($r=-.150, p<.001$)는 유의한 부정적 관계가 나타나, 체중만족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형관리나 몸매관리는 낮아지며, 헤어연출과 피부관리는 높아졌다.

또한 총 신체존중감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에서 총 신체존중감은 메이크업연출($r=.196, p<.001$), 헤어연출($r=.171, p<.001$), 피부관리($r=.154, p<.001$), 총 뷰티관리($r=.191, p<.05$)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성형관리($r=-.198, p<.01$)는 유의한 부정적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총 신체존중감이 높은 여성일

수록 메이크업연출, 헤어연출, 피부관리 및 총 뷰티관리는 높아지며, 성형관리는 낮아 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신체를 보다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심리적 건강증진의 수준이 높고, 화장, 피부관리, 헤어연출을 통한 외모관리행동이 높다고 한 이은실(2011)의 연구와 신체자신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성향이 높다는 김윤, 황석진(2008), 신주동, 최종명(2008)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서은혜(2012)의 연구에서는 신체자신감과 피부관리지향, 성형관리지향, 헤어관리지향, 화장관리지향, 체중(몸매)관리지향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성형관리에서는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홍수남(2013)의 연구에서 미용성형관리행동과 신체만족도 중 체형만족도와 얼굴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과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한다. 이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외모와 체중에 만족할수록 미용성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윤정 외(2003)의 연구에서도 신체만족도가 높으면 미용성형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이는 자신에 대한 수용 정도와 가치가 높아 직접적인 변형보다는 간접적인 도구(화장, 헤어)를 이용한 표현 변화에 관심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는 신체적 존중감이 외모에 대한 관심과 심리적 영향으로 적극적으로 뷰티관리로 이어져 메이크업관리와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짐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7> 신체존중감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

(N=641)

신체존중감 \ 뷰티관리	메이크업 연출	성형관리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	총 뷰티관리
체기능존중감	.109**	-.100*	.080*	.062	.002	.042
외모존중감	.309***	-.116**	.253***	.236***	.202***	.246***
체중만족감	.051	-.257***	.079*	.081*	-.150***	-.049
전체	.196***	-.198***	.171***	.154***	.012	.091*

* p<.05 ** p<.01 *** p<.001

5) 신체존중감과 헤어행동의 관계

신체존중감과 헤어행동의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총 신체존중감과 총 헤어행동간의 상관관계는 $r=.021$ 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존중감의 하위 요인과 헤어행동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체기능존중감과 헤어행동간의 상관관계에서 체기능존중감은 헤어일관성 ($r=-.101$, $p<.05$)과 유의한 부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체기능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일관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존중감과 헤어행동간의 관계는 외모존중감은 헤어대인지향성($r=.138$, $p<.001$)과 헤어 개성($r=.291$, $p<.001$), 총 헤어행동($r=.204$, $p<.0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외모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대인지향성, 헤어개성 및 총 헤어행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주연 등(2005)의 연구에서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헤어스타일로 개성을 표현하고자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한다.

체중만족감과 헤어행동의 상관관계에서 체중만족감은 헤어동조성($r=-.237$, $p<.001$)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나타내어 체중만족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동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신체존중감과 헤어행동의 상관관계에서 총 신체존중감은 헤어대인지향성($r=.081$, $p<.05$), 헤어개성($r=.115$, $p<.01$)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헤어동조성($r=-.126$, $p<.01$)과는 유의한 부정적 관계를 나타내어 신체존중감이 높을수록 헤어대인지향성, 헤어개성에 대한 관리행동은 높아지며, 헤어동조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옥(2011)은 신체적 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스타일 행동에서 동조성, 대인지향, 유행, 개성을 모두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신체존중감과 헤어동조성의 관계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매스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유행 및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남을 따라하기보다는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졌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동조성’이 서울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강원도 지역까지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서울지역만 조사한 본 연구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유추된다.

<표 18> 신체존중감과 헤어행동의 상관관계

(N=641)

신체존중감 \ 헤어행동	헤어대인지향성	헤어개성	헤어동조성	헤어일관성	총 헤어행동
체기능존중감	.030	.055	-.069	-.101*	-.033
외모존중감	.138***	.291***	-.077	.049	.204***
체중만족감	.024	-.043	-.237***	-.012	-.091
총 신체존중감	.081*	.115**	-.126**	-.024	.021

* $p<.05$ ** $p<.01$ *** $p<.001$

4.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이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에 미치는 영향

<표 19>는 인구통계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독립변인으로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을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외현적 자기애성향을 투입하여 단계적 분석법에 의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여부(기혼=1, 미혼=0), 직업여부(유=1, 무=0), 운동여부(유=1, 무=0), 음주여부(유=1, 무=0), 흡연여부(유=1, 무=0)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적용하였으며, 이하 분석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표 19>에서 내현적 자기애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면, 월평균개인소득($\beta=-.149$, $p<.001$), 운동($\beta=-.246$, $p<.01$)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운동을 하는 여성일수록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낮아졌다. 이 2개 변인의 설명력은 4.0%($R^2=0.040$)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F=13.186$, $p<.001$)

다음으로 외현적 자기애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면, 월평균개인소득($\beta=.074$, $p<.001$), 직업여부($\beta=.222$, $p<.01$), 외모관리비($\beta=.139$, $p<.001$), 다이어트($\beta=.113$, $p<.001$)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외모관리비가 많을수록,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는 직업여성일수록, 자신의 외현적 자기애성향은 높아졌다. 이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2.6%($R^2=0.126$)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F=22.886$, $p<.001$)

<표 19> 자기에성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64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²
내현적 자기애성향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소득	-.079	-.149	-3.803***	R ² =.040 F=13.186***
	개인적 특성	운동(유)	-.246	-.113	-2.894**	
외현적 자기애성향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소득	.074	.140	3.495***	R ² =.126 F=22.886***
		직업(유)	.222	.101	2.648*	
	개인적 특성	외모관리비	.139	.203	4.997***	
		다이어트	.113	.135	3.509***	

* p<.05 ** p<.01 *** p<.001, 더미변수 : 운동(1=유, 0=무)

5.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에성향이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

<표 20>은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과 내·외현적 자기에성향이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독립변인으로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에성향을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인으로 신체존중감을 투입하여 단계적 분석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신체존중감에 대해서는 개인적 특성 중 음주여부($\beta=.077$, $p<.05$)와 운동여부($\beta=.066$, $p<.05$) 및 내현적 자기에성향($\beta=-.487$, $p<.001$), 외현적 자기에성향($\beta=.091$, $p<.05$)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주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여성, 내현적 자기에성향은 낮고, 외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신체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개 변인의 설명력은 29.9%($R^2=0.299$)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7.735$, $p<.001$).

신체존중감의 하위요인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과 여성의 내·외현적 자기에성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기능존중감에는 음주여부($\beta=.155$, $p<.001$), 다이어트($\beta=.091$, $p<.05$), 학력($\beta=.081$, $p<.05$), 내현적 자기에성향($\beta=-.354$, $p<.0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음주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낮은 여성일수록, 체기능 존중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이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7.2%($R^2=0.172$)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3.138$, $p<.001$).

외모존중감에는 외모관리비($\beta=.098$, $p<.01$), 내현적 자기에성향($\beta=-.291$, $p<.001$), 외현적 자기에성향($\beta=.267$, $p<.0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외

모관리비가 높고,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낮고, 외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은 여성들이 외모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개 변인의 설명력은 24.8%($R^2=0.248$)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69.903$, $p<.001$).

체중만족감에는 다이어트($\beta=-.103$, $p<.01$)와 내현적 자기애성향($\beta=-.406$, $p<.001$)이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즉 다이어트를 하지않고,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낮은 여성들이 체중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2개 변인의 설명력은 16.7%($R^2=0.167$)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63.902$, $p<.001$).

<표 20> 신체존중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N=64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2
체기능존중감	개인적 특성	음주(유)	.226	.155	4.289***	$R^2=.172$ $F=33.138^{***}$
		다이어트	.056	.091	2.514*	
	인구통계적 변인	학력	.057	.081	2.221*	
		자기애성향	내현적 자기애	-.015	-.354	
외모존중감	개인적 특성	외모관리비	.051	.098	2.730**	$R^2=.248$ $F=69.903^{***}$
	자기애성향	내현적 자기애	-.013	-.291	-7.806***	
		외현적 자기애	.031	.267	6.871***	
체중만족감	개인적 특성	다이어트	-.088	-.103	-2.826**	$R^2=.167$ $F=63.902^{***}$
	자기애성향	내현적 자기애	-.025	-.406	-11.169***	
총 신체존중감	개인적 특성	음주(유)	.095	.077	2.280*	$R^2=.299$ $F=67.735^{***}$
		운동(유)	.089	.066	1.978*	
	자기애성향	내현적 자기애	-.018	-.487	-13.368***	
		외현적 자기애	.009	.091	2.503*	

* $p<.05$ ** $p<.01$ *** $p<.001$, 더미변수 : 음주(1=유, 0=무)

6.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에 미치는 영향력

<표 21>은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독립변인으로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을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인으로 뷰티관리를 투입하여 단계적 분석법에 의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뷰티관리에는 연령($\beta=.112$, $p<.01$), 개인소득($\beta=.101$, $p<.01$), 외모관리비($\beta=.171$, $p<.001$), 흡연여부($\beta=.082$, $p<.05$), 다이어트($\beta=.174$, $p<.001$)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내현적 자기애성향($\beta=.260$, $p<.001$), 외현적 자기애성향($\beta=.270$, $p<.001$), 외모존중감($\beta=.174$, $p<.0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총 뷰티관리는 연령이 많고, 외모관리비가 높고, 다이어트를 하고, 기혼자이거나, 흡연을 하고, 개인소득,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높을수록 뷰티관리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8개 변인의 설명력은 30.0% ($R^2=0.300$)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3.814$, $p<.001$).

신체존중감의 하위요인들을 포함한 뷰티관리의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메이크업연출에는 운동여부($\beta=.105$, $p<.01$), 음주여부($\beta=.097$, $p<.01$), 외모관리비($\beta=.220$, $p<.001$), 내현적 자기애성향($\beta=.183$, $p<.001$), 외현적 자기애성향($\beta=.228$, $p<.001$), 외모존중감($\beta=.224$, $p<.0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운동과 음주를 하고, 외모관리비가 높고,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메이크업연출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6개 변인의 설명력은 25.6% ($R^2=0.256$)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6.397$, $p<.001$).

성형관리에는 결혼여부($\beta=.171, p<.001$), 흡연여부($\beta=.082, p<.05$), 외모관리비($\beta=.108, p<.01$), 내현적 자기애성향($\beta=.314, p<.001$), 외현적 자기애성향($\beta=.214, p<.001$), 외모존중감($\beta=-.111, p<.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기혼이거나 흡연을 하고, 외모관리비가 높고,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이 높고, 외모존중감이 낮을수록 성형관리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6개 변인의 설명력은 16.1%($R^2=0.161$)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0.218, p<.001$).

헤어연출에는 연령($\beta=.135, p<.001$), 외모관리비($\beta=.124, p<.01$), 다이어트($\beta=.084, p<.05$), 내현적 자기애성향($\beta=.126, p<.01$), 외현적 자기애성향($\beta=.227, p<.001$), 외모존중감($\beta=.179, p<.0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연령이 많고, 외모관리비가 높고,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고,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이 높고, 외모존중감이 높을수록 헤어연출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6개 변인의 설명력은 16.0%($R^2=0.160$)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0.175, p<.001$).

피부관리에는 외모관리비($\beta=.089, p<.05$), 다이어트($\beta=.166, p<.001$), 외현적 자기애성향($\beta=.159, p<.001$), 외모존중감($\beta=.130, p<.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외모관리비가 높고,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고, 외현적 자기애성향이 높고 외모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피부관리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3.3%($R^2=0.133$)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4.320, p<.001$).

몸매관리에는 연령($\beta=.249, p<.001$), 흡연여부($\beta=.081, p<.05$), 운동여부($\beta=.081, p<.05$), 외모관리비($\beta=.163, p<.001$), 다이어트($\beta=.203, p<.001$), 내현적 자기애성향($\beta=.199, p<.001$), 외현적 자기애성향($\beta=.142, p<.001$), 외모존중감($\beta=.224, p<.001$), 체중존중감($\beta=-.156, p<.0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연령이 높고, 흡연을 하고, 운동을 하고, 외모관리비가 높고,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고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이 높고, 체중존중감이 낮을수록 몸매관리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9개 변인의 설명력은

30.6%($R^2=0.306$)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3.893$, $p<.001$).

<표21> 뷰티관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N=64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2
메이크업 연출	개인적 특성	운동(유)	.192	.105	2.997**	$R^2=.256$ $F=36.397^{***}$
		음주(유)	.164	.097	2.733**	
		외모관리비	.127	.220	5.909***	
	자기애성향	내현적 자기애	.009	.183	4.647***	
		외현적 자기애	.029	.228	5.677***	
신체존중감	외모존중감	.247	.224	5.658***		
성형관리	인구통계적 변인	결혼여부(기혼)	.301	.171	4.661***	$R^2=.161$ $F=20.218^{***}$
	개인적 특성	흡연(유)	.214	.082	2.215*	
		외모관리비	.063	.108	2.771**	
	자기애성향	내현적 자기애	.016	.314	7.553***	
		외현적 자기애	.028	.214	5.023***	
신체존중감	외모존중감	-.215	-.111	-2.631**		
헤어연출	인구통계적 변인	연령	.010	.135	3.669***	$R^2=.160$ $F=20.175^{***}$
	개인적 특성	외모관리비	.071	.124	3.159**	
		다이어트	.059	.084	2.192*	
	자기애성향	내현적 자기애	.006	.126	3.029**	
		외현적 자기애	.029	.227	5.278***	
신체존중감	외모존중감	.196	.179	4.266***		
피부관리	개인적 특성	외모관리비	.044	.089	2.230*	$R^2=.133$ $F=24.320^{***}$
		다이어트	.102	.166	4.278***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	.018	.159	3.793***	
신체존중감	외모존중감	.125	.130	3.203**		
몸매관리	인구통계적 변인	연령	.017	.249	7.372***	$R^2=.306$ $F=33.893^{***}$
		흡연(유)	.186	.081	2.375*	

	개인적 특성	운동(유)	.134	.081	2.209*	
		외모관리비	.085	.163	4.474***	
		다이어트	.130	.203	5.423***	
	자기애성향	내현적 자기애	.009	.199	4.970***	
		외현적 자기애	.016	.142	3.595***	
	신체존중감	외모존중감	.223	.224	5.550***	
		체중존중감	-.117	-.156	-4.074***	
	총 뷰티관리	인구통계적 변인	연령	.006	.112	
개인소득			.031	.101	2.726**	
개인적 특성		외모관리비	.066	.171	4.515***	
		흡연(유)	.140	.082	2.397*	
		다이어트	.083	.174	4.958***	
자기애성향		내현적 자기애	.009	.260	6.782***	
		외현적 자기애	.023	.270	6.817***	
신체존중감		외모존중감	.130	.174	4.536***	

* $p<.05$ ** $p<.01$ *** $p<.001$,

더미변수 : 운동(1=유, 0=무), 음주(1=유, 0=무), 흡연(1=유, 0=무), 결혼(1=기혼, 0=미혼)

7.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 존중감이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표 22>는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 존중감이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독립변인으로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 존중감을 투입하였으며 종속변인으로 헤어행동을 투입하여 단계적 분석법에 의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헤어행동에 대해서는 연령($\beta=.264$, $p<.001$), 외모관리비($\beta=.115$, $p<.01$), 흡연여부($\beta=.084$, $p<.05$), 내현적 자기애성향($\beta=.317$, $p<.001$), 외현적 자기애성향($\beta=.308$, $p<.001$), 외모존중감($\beta=.233$, $p<.001$), 체중만족감($\beta=-.098$, $p<.05$)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연령이 높고, 외모관리비가 높고, 흡연을 하고,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을수록, 외모 존중감이 높거나 체중만족감이 낮을수록 헤어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7개 변인의 설명력은 27.5%($R^2=0.275$)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4.306$, $p<.001$).

신체 존중감의 하위요인들을 포함한 헤어행동의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헤어대인지향성에는 내현적 자기애성향($\beta=.334$, $p<.001$), 외현적 자기애성향($\beta=.221$, $p<.001$), 외모존중감($\beta=.092$, $p<.05$)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대인지향성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개 변인의 설명력은 12.0%($R^2=0.120$)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8.905$, $p<.001$).

헤어개성에는 외모관리비($\beta=.156$, $p<.001$), 연령($\beta=.111$, $p<.01$), 학력($\beta=-.103$, $p<.01$), 흡연여부($\beta=.865$, $p<.05$) 내현적 자기애성향($\beta=.156$, $p<.001$),

외현적 자기애성향($\beta=.275, p<.001$), 외모존중감($\beta=.271, p<.001$), 체중만족감($\beta=-.097, p<.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외모관리비와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고, 흡연을 하고, 내·외현적 자기애성향과 외모존중감이 높고, 체중만족감이 낮은 여성일수록 헤어개성에 대한 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8개 변인의 설명력은 23.7%($R^2=0.237$)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4.557, p<.001$).

헤어동조성에는 결혼여부($\beta=.210, p<.001$), 외모관리비($\beta=.135, p<.001$), 운동여부($\beta=.097, p<.01$), 내현적 자기애성향($\beta=.315, p<.0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기혼이거나 외모관리비가 높고, 운동을 하고,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동조성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개 변인의 설명력은 15.3%($R^2=0.153$)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8.775, p<.001$).

헤어일관성에는 연령($\beta=.236, p<.001$), 외현적 자기애성향($\beta=.111, p<.01$), 체기능존중감($\beta=-.111, p<.01$)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연령과 외현적 자기애성향이 높고, 체기능존중감이 낮은 여성일수록 헤어일관성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개 변인의 설명력은 7.6%($R^2=0.076$)이었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7.207, p<.001$).

<표 22> 헤어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인과관계

(N=64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2
헤어 대인지향성	자기애성향	내현적 자기애	.030	.334	7.902***	$R^2=.120$ $F=28.905^{***}$
		외현적 자기애	.008	.221	5.232***	
	신체존중감	외모존중감	.071	.092	2.148*	
헤어개성	인구통계적변인	학력	-.078	-.103	-2.885**	$R^2=.237$ $F=24.557^{***}$
		연령	.008	.111	3.147**	
	개인적 특성	외모관리비	.007	.156	3.720***	

	자기애성향	흡연(유)	.204	.086	2.432*	
		내현적 자기애	.007	.156	3.720***	
	외현적 자기애	.033	.275	6.681***		
	신체존중감	외모존중감	.278	.271	6.425***	
		체중만족감	-.097	-.126	-3.169**	
헤어동조성	인구통계적 변인	결혼여부 (기혼)	.296	.210	5.694***	$R^2=.153$ $F=28.775^{***}$
	개인적 특성	외모관리비	.064	.135	3.639***	
		운동(유)	.146	.097	2.593**	
	자기애성향	내현적 자기애	.013	.315	8.496***	
헤어일관성	인구통계적 변인	연령	.014	.236	6.192***	$R^2=.075$ $F=17.207^{***}$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	.011	.111	2.864**	
	신체존중감	체기능존중감	-.103	-.111	-2.872**	
총 헤어행동	인구통계적 변인	연령	.010	.264	7.728***	$R^2=.275$ $F=34.306^{***}$
		개인적 특성	외모관리비	.033	.115	
	흡연(유)		.106	.084	2.437*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	.020	.308	7.690***	
		내현적 자기애	.008	.317	7.796***	
	신체존중감	외모존중감	.127	.233	5.671***	
체중만족감		-.040	-.098	-2.535*		

* $p<.05$ ** $p<.01$ *** $p<.001$,

더미변수 : 운동(1=유, 0=무), 흡연(1=유, 0=무), 결혼(1=기혼, 0=미혼)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의 내·외현적 자기에 성향, 신체존중감과 뷰티관리 및 헤어 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에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의 차이를 조사하며,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에성향,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와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서울지역의 20~60대 여성 총 6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에성향, 신체존중감, 뷰티관리, 헤어행동의 차이

첫째, 결혼여부에 따른 내·외현적 자기에성향은 미혼 여성들이 기혼 여성보다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외현적 자기에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개인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400-500만원 미만이 외현적 자기에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모관리비가 10-20만원 미만인 경우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모관리비가 많을수록 외현적 자기에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운동, 음주,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이 하지않는 여성보다 외현적 자기에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직업여부에 따른 신체존중감은 체기능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여성보다 직업이 있는 여성들의 체기능존중감이 높게 나

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 여성들의 체기능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개인소득에 따른 신체존중감은 외모존중감($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모존중감은 월평균개인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여성들의 외모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운동여부에 따른 차이를 볼 때 운동을 하는 여성이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총 신체존중감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주여부에 대한 신체존중감은 음주를 하는 여성이 하지 않는 여성보다 체기능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령에 따른 뷰티관리는 성형관리, 헤어연출, 몸매관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형관리는 30대 이상이 비교적 높았으며, 헤어연출, 몸매관리는 50대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른 뷰티관리는 미혼여성보다 기혼여성의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른 뷰티관리를 볼 때 메이크업 연출은 대졸여성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음주, 흡연, 운동,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은 하지 않는 여성보다 뷰티관리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연령에 따른 헤어행동은 헤어동조성, 헤어일관성, 전체적인 헤어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총 헤어행동의 평균을 비교할 때 여성들은 헤어대인지향의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 헤어일관성, 헤어동조성, 헤어개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동여부에 따라서는 헤어개성과 헤어동조성, 총 헤어행동은 운동을 하는 여성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헤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여부에 따른 헤어행동 중에서 헤어대인지향성, 헤어개성, 총 헤어행동은 음주를 하지 않는 여성보다는 음주를 하는 여성들의 헤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에 따른 차이에서 헤어개성, 헤어동조성, 총 헤어행동은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는 흡연을 하는 여성들의 헤어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내·외현적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의 관계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과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 및 총 신체존중감이 낮아졌다.

외현적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외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체기능존중감,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 및 총 신체존중감이 높아졌다. 특히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외모존중감과 부정적 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외현적 자기에성향과 신체존중감의 상관관계에서는 외모존중감과의 정적 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3) 내·외현적 자기에성향과 뷰티관리의 관계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형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 피부관리는 낮았다. 외현적 자기에성향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에서 외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메이크업 연출, 성형관리,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 및 총 뷰티관리가 높아졌다.

4) 내·외현적 자기에성향과 헤어행동의 관계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헤어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동조성 및 총 헤어행동이 높아졌다. 외현적 자기에성향과 헤어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 외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대인지향성, 헤어개성, 헤어일관성이 높아졌다.

5) 신체존중감과 뷰티관리의 관계

체기능존중감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에서 체기능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메이크업연출과 헤어연출이 높아지고, 성형관리는 낮아졌다. 외모존중감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에서 외모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메이크업연출, 헤어연출, 피부관리, 몸매관리 및 총 뷰티관리는 높았으며, 성형관리는 낮아졌다. 체중만족감과 뷰티관리의 상관관계에서 체중만족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성형관리나 몸매관리는 낮아지며, 헤어연출과 피부관리는 약간 높아졌다.

6) 신체존중감과 헤어행동의 관계

체기능존중감과 헤어행동간의 상관관계에서 체기능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일관성이 낮아졌으며, 외모존중감과 헤어행동간의 상관관계에서 외모존중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대인지향성, 헤어개성 및 총 헤어행동이 높아졌다. 체중만족감과 헤어행동간의 상관관계에서 체중만족감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동조성이 낮았다.

7) 인구통계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이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면, 월평균개인소득, 운동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운동을 하는 여성일수록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낮아졌다.

외현적 자기애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면, 월평균개인소득, 직업여부, 외모관리비, 다이어트로 나타났다. 즉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외모관리비가 많을수록,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는 직업여성일수록, 자신의 외현

적 자기애성향은 높아졌다.

8)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이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신체존중감의 하위요인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과 여성의 내·외현적 자기애성향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기능존중감에는 음주여부, 다이어트, 학력,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음주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낮은 여성일수록, 체기능 존중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외모존중감에는 외모관리비,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외모관리비가 높고,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낮고, 외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은 여성들이 외모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만족감에는 다이어트와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었다. 즉 다이어트를 하지않고,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낮은 여성들이 체중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뷰티관리에 미치는 영향

뷰티관리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메이크업연출에는 운동여부, 음주여부, 외모관리비,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성형관리에는 결혼여부, 흡연여부, 외모관리비,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기혼여성이거나 흡연을 하는 여성일수록 성형관리 정도가 높았다. 헤어연출에는 연령, 외모관리비, 다이어트,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

성향, 외모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피부관리에는 외모관리비, 다이어트, 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몸매관리에는 연령, 흡연여부, 운동여부, 외모관리비, 다이어트,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10) 인구통계적 변인, 개인적 특성,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헤어행동에 미치는 영향

헤어행동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헤어대인지향성에는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이 의미있는 영향을 주어, 이들 변인이 높은 여성일수록 헤어대인지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개성에는 외모관리비, 연령, 학력(-), 흡연여부, 내현적 자기애성향, 외현적 자기애성향, 외모존중감, 체중만족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헤어동조성에는 결혼여부, 외모관리비, 운동여부,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기혼 여성일수록 헤어동조성이 높았다. 헤어일관성에는 연령, 외현적 자기애성향, 체기능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총 뷰티관리는 외모관리비가 높고, 다이어트를 하고, 기혼자이며, 흡연을 하고, 개인소득, 내·외현적 자기애성향, 신체존중감이 높을수록 향상되었다. 총 헤어행동은 연령이 높고, 외모관리비가 높고, 흡연을 하고, 내·외현적 자기애성향과 외모존중감이 높고 체중만족감이 낮을수록 헤어행동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치있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자기애성향과 신체존중감은 뷰티관리와 헤어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심하고 쉽게 우울해지며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성향을 지닌 내현적 자기애자들은 자신의 신체를 매개로 심리적 불안

과 스트레스를 받아 성형과 같은 극단적 뷰티관리를 선택할 가능성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뷰티관리에 대한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뷰티산업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어 국내 뷰티 산업시장에 적극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음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제언하여 본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서울 지역 뷰티숍 고객으로 한정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과 직종별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성들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뷰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녀를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애를 건강한 성격특질로서의 자기애보다 병리적인 특질을 가지는 자기애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외현적 자기애 척도를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Covert Narcissism Scale(CNS)을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기애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분화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자기애의 특성상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이상적인 문항에 답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결과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내현적 자기애성향자의 경우 자기보고식과 더

불어 면접상담을 통한 질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신체존중감이나 뷰티관리, 헤어행동에 대한 척도를 세분화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며,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음주, 흡연자들의 뷰티관리가 높게 나타난 결과로 인해 뷰티관리가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보다 체계화된 이론을 바탕으로 재활치료와 연관시켜 이들의 심리 특성과 행동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뷰티관리와 헤어행동을 통해서 현대인의 부정적 자기애성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 또한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뷰티관리에 적극적인 외현적 자기애성향자의 심리학적 연구 또한 심도있게 이루어져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남순 (2011). 대학생의 신체만족도가 외모관리행동 및 미용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9(1), pp. 63-80.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4), pp. 969-990.
- 강연우 (2004). 자기애와 방어유형. *학생생활연구*, 9, pp. 83-98.
- 강혜원 (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p. 94.
- 고대식, 류소연, 정대인, 김미정, 김용남, 박종 (2013). 일부 여대생의 운동행위 단계별 우울과 생활스트레스 차이. *디지털정책연구*, 11(5), pp. 395-404.
- 교육학용어사전 (1989).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국어사전 (2006). 서울: 민중서림.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8(3), pp. 627-642.
- 김미리 (2012).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스타마케팅 관심도 및 헤어행동 간의 관련성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선 (2011). *헤어스타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헤어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선 (2013). 40대 여성의 헤어행동과 미용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4(2), pp. 213-231.
- 김선우 (2013). *여성외모의 아름다운 인식에 대한 한중일 비교문화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희, (2009). *여성의 연령별 화장 및 미용성형행동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경, 한동조 (2008). 남녀고등학생들의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양상분석: 피부관리,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조형미디어*, 11(4), pp. 39-44.
- 김영란 (2010).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용관심 요인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6(1), pp. 280-288.
- 김영신, 양난미 (2010). 남녀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섭식억제간의 관계에서 신체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29(4). pp. 791-815.
- 김옥수, 김계하 (2001). 여대생과 직장여성들의 사회적지지, 우울, 음주, 흡연에 대한 비교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3(3), pp. 363-372.
- 김완석 (2007).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개발 및 성차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12(2), pp. 231-253.
- 김완석, 박은아 (2009). 객체화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 자기해석의 관계: 한국, 중국, 일본 여대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14(1), pp. 23-46.
- 김완석, 차주화 (2006). 신체가치와 소비행동: 척도개발과 활용을 위한 탐색연구. *한국심리학회지*, 7(3), pp. 455-485.
- 김유성 (2011). *자기에성향별 신체매력성 지각이 미용추구혜택 및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성, 박옥련 (2009). 자기에 성향에 따른 집단별 외모관심도 및 미용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5), pp. 808-817.
- 김윤, 황석진 (2008). 사회문화적 압력과 대상화된 신체의식이 성인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10), pp. 112-122.
- 김재숙, 이미숙 (2001). TV 미디어가 청소년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5), pp. 957-968.

- 김종욱 (2010). *중년여성의 자기애성향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윤 (2013). *의복행동에서 자기감시와 자기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아, 김성남 (2010). *신체만족도에 따른 헤어스타일 행동에 관한 연구 : 서울소재 대학교의 미용전공 여대생을 중심으로*. *대한피부미용학회지*, 8(4), pp. 1-10.
- 김태미 (2010).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행동 및 뷰티관심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해정 (2008). *자기애 성향에 따른 외모관여도 및 의복소비가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향숙, 오정숙 (2007). *고등학생의 건강증진행위 및 피부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5(2), pp. 149-158.
- 김현정 (2009). *남녀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과 외모관련태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정, 김미라 (2010).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 및 체형에 대한 외적 요인이 다이어트 실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4), pp. 65-75.
- 노선옥 (2011).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및 화장동기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현혜, 유태순 (2007). *노년 여성의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복식*, 57(9), pp. 97-109.
- 류현혜 (2007). *노년 여성의 개인적·사회적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광희, 유화숙 (2012).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 간의 인과관계 분*

- 석. *대한가정학회지*, 50(1), pp. 51-63.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숙현, 류은혜, 이순덕 (2006). 한국과 호주여성의 헤어스타일 행동 및 선호도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pp. 129-139.
- 박숙현, 박현주 (2011). 과시소비성향에 따른 뷰티관여도의 연령별 차이 비교.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2(4), pp. 67-81.
- 박영주, 정남운 (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4(1), pp. 55-74.
- 박은아 (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2(2), pp. 35-56.
- 박은아, 우석봉 (2006). 한국인, 우리들의 소비 트렌드 보고서. *광고정보*, 300, pp. 80-83.
- 박정수, 이민규, 신희천 (2007). 여대생의 절식 및 폭식행동에 대한 자기 평가의 신체 중요성 지각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26(1), pp. 73-91.
- 박주비, 정옥임 (2005). 여대생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6), pp. 97-112.
- 박주현, (2010). *여성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외모관리행동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현, 박옥련 (2009).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외모관리태도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0(2), pp. 115-126.
- 박현주 (2012). *과시소비성향이 패션 및 뷰티관여도와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원철, 김수겸 (2004). 성인여성의 스포츠 참여 변인과 자아존중감 및 주관

- 적 행복감간의 인과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3(6), pp. 249-260.
- 서란숙 (2014). 여성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이미지에 따른 화장태도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2(1), pp. 475-489.
- 서은혜 (2012). 자기애성향,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형택 (2011). 신입사원 조기정착을 위한 스마트 스타트, *삼성경제연구소*, 129.
- 설현진 (2009).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뷰티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남숙, 최수경 (2011). 신체이미지와 토털 패션이미지와의 관계: 의복, 메이크업, 헤어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2), pp. 243-251.
- 성영신, 박은아, 이주원, 김운섭 (2009). 아름다움의 심리적 권력: 성별, 영역별 미(美)권력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3), pp. 461-488.
- 성현주 (2006). *한국현대동화의 나르시시즘 양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세계미술용어사전 (1998). *월간미술*, p.152
-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9(3), pp. 735-750.
- 신동주, 정남운 (2006). 여대생 집단에서 내현적 자기애, 부정적평가에 대한 두려움, 신체상 만족도가 마르고자 하는 욕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pp. 77-94.
- 신미영, 이인혜 (1997). 대중매체가 여성의 다이어트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한국임상심리학회지*, pp. 164-168.
- 신주동, 최종명 (2008).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와 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착용. *복식문화연구*, 16(2), pp. 305-318.
- 신효정 (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 화장, 헤어스*

- 타일, 신체이미지, 성형수술, 의복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종연 (2002). 청소년의 비만도 및 신체 존중감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진, 이인성 (2009). 현대 여성의 콘트라섹슈얼 성향에 따른 패션 디자인 개발. 현대 여성의 콘트라섹슈얼 성향에 따른 패션 디자인 개발. 복식문화연구, 17(5), pp. 733-745.
- 오별, 김성남, 이중민, 진용미 (2012). 청소년의 뷰티관심도와 정보관심이 뷰티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8(3), pp. 515-522.
- 오수연 (2012). 가치관에 따른 소비자 집단의 외모관여도와 피부관리 구매행동.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의재 (1995). 구매후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 만족도, 상표태도, 재구매 의도와 의 관계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주훈, 조만태 (2000). 여대생의 생활체육 참가가 신체상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3(2), pp. 321-332.
- 원종욱, 정기혜, 황도경 (2009). 뷰티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53.
- 유선미, 정재윤 (2011). 여성의 자기애 유형에 따른 네일 서비스 구매행동과 만족 비교.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4), pp. 268-282.
- 윤선민, 신희천 (2007).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9(4), pp. 967-982.
- 이경숙 (2007). 성인 여성의 외모관심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예술학회지, 1(2), pp. 109-117.
- 이경희 (2011). 학생의 우울,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 이은실 (1998). 의복행동 및 의복태도 관련 변인에 관한 문헌고찰. 성

- 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12(1), pp. 1-25.
- 이명희, 심선녀, 정숙희 (2006). 20대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만족에 따른 자기 효능감 및 신체 만족도. *대한미용학회지*, 2(1), pp. 59-68.
- 이승아 (2009). *생활체육 참여유무에 따른 객체화된 신체의식이 자기가치 및 심리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분 (2011). *중년 여성의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우 (2005). 성인의 스키, 스노우보드 참여가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9, pp. 183-194.
- 이유종 (2010).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매력인지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실 (2011). 신체매력 지각이 건강증진행동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6), pp. 47-56.
- 이재주 (2011). *생활체육동호인의 여가정체성 요인에 따른 신체적 존중감, 심리적 행복감 및 생활만족의 관계*.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숙 (2001). *중·고등학생의 성별, 비만, 타인의 평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 김미영 (2007). 의복관여에 따른 헤어관여와 헤어태도의 차이 및 헤어실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2), pp. 69-83.
- 전연숙, 김향숙 (2008). 건강증진행위, 피부건강관리 및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4(3), pp. 985-991.
- 전현진, 정명선 (2008). 중년 여성의 신체 관련 스트레스가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6(1), pp. 115-129.
- 전현진, 정명선 (2011).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와 헤어관여도가 헤어스타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7(6), pp. 1150-1162.
- 전현진, 정명선 (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존중감이 미용성

- 형수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6(3), pp. 734-741.
- 정경숙, 서경현 (2002). 미용에 대한 만족과 관심 및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8(3), pp. 19-30.
- 정경숙, 서경현 (2002). 미용에 대한 만족과 관심 및 자기효능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8(3), pp. 19-30.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에 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3(1), pp. 193-216.
- 정남운, 강선희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4), pp. 969-990.
- 정덕조 (2006). 여대생들의 비만정도가 체중조절 행위, 신체상, 자기효능감, 건강증진 행위 및 정신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운동과학*, 15(4), pp. 365-376.
- 정지영, 신혜원 (2006).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및 의복추구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8(4), pp. 13-23.
- 정진태, 김철순 (2009). 토털 패션 Styling을 위한 헤어 행동 연구. *복식문화연구*, 71(1), pp. 90-104.
- 정효현, 김정남 (2011). 여대생의 자기에적 성향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신체만족도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pp. 1599-1611.
- 정희영 (2011). 20대 여성의 헤어태도 집단에 따른 헤어관여의 차이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7(2), pp. 355-362.
- 조선영 (2014). 성인여성의 생활연령과 지각연령의 차이가 외모관리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인철 (1998). 대학생들의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에 관한 연구 대학생들의 신체의식과 신체존중감에 관한 연구. *경남체육연구*, 3(1), pp. 57-66.
- 최수경 (2010).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추구이미지에 따른 성인여성의 액세서리 착용 및 화장 정도.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1), pp. 335-344.

- 최수경, 강경자 (2006). 신체 만족도와 화장 태도에 따른 성인 여성의 매슬로우 욕구와 화장 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4(3), pp. 497-513.
- 최인선, 최한나 (2013). 내현적 자기에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pp. 2815-2831.
- 최진주 (2013). *여자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존중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정, 장문선 (2010). 외현적, 내현적 자기에 성향집단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자아방어기제 특징. *상담학연구*, 11(2), pp. 539-554.
- 칸트사전 (2009). 사카베 메구미, 아리후쿠 고가쿠 저, 이신철 역, 서울: 도서출판 b, pp. 344-345.
- 패션전문자료사전 (1991). 한국사전연구소. p. 1510.
- 표내숙, 김동주, 박종태 (2000). 지체부자유아의 농구운동참여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 제 38회 학술발표집*, pp. 202-208.
- 하경연 (2011).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감각추구 성향이 청소년의 헤어스타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과 니트*, 9(1), pp. 97-106.
- 하주연, 고애란, 정미실 (2005). 여고생의 감각추구성향과 신체이미지에 따른 의복행동 및 헤어스타일 태도. *한국의류학회지*, 29(5), pp. 715-726.
- 허은실, 강현진, 이경혜 (2003). 일부 청소년의 체중조절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8(5), pp. 658-666.
- 허정록, 김선형 (2012). 미용요법이 중년여성의 우울증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3(1), pp. 5-16.
- 홍수남 (2013). 미혼여성의 섹슈얼리티 성향에 따른 뷰티관심도와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4(5), pp. 701-708.
- 홍수남 (2013). 한국 거주 중국여성의 외모관심도가 뷰티관리행동에 미치는

-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1(3), pp. 585-591.
- 홍수남 (2013). *한국여성과 이주여성의 외모관심도와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모 관리행동*.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인옥 (2011). *흡연, 음주, 운동, 비만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문수 역, Fromm, E. (1977). *인간의 마음*. 현대여성교양 명저백선, 서울: 범조사, 17.
- 황성훈 (2010). 자기애성 성격 성향자들의 자기구조 특성: 외현적 및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분류에 따른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29(3), pp. 507-531.
- 황순옥, 장준은, 정태영, 임수진 (2012). 뷰티산업 정책·제도 조사·분석: 뷰티산업 해외진출 방안 중심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16.
- 황연순 (2009). 소비자의 자기애성향과 화장품 쇼핑성향과의 관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2), pp. 326-336.
- 황윤정 (2007).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윤정, 조기여, 유태순 (2003).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미용성형행동 연구. *패션비즈니스*, 7(4), pp. 17-25.
- Akhtar, S., & Thomson, A. (1982). Overview: Narcissi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pp. 12-20.
- Akiba, D. (1998). Cultural Variations in Body Esteem: How Young Adults in Iran and the United States View Their Own appearanc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4), pp. 539-540.
- Barak, Y., Lampl, Y., & Sarova-Pinchas, I. (1998). Self and body esteem perception in multiple sclerosis. *Behavioural Neurology*, 11(3), pp. 159-161.

- Berscheid, E., Walster, E., & Bohrnstedt, G. (1973). The happy American body: A survey report. *Psychology Today*, 7, pp. 119-131.
- Cash, T. F. (1990). The psychology of physical appearance :Aesthetics, attributes, and images. In T. F. Cash & T. Pruzinsky (Ed.)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pp. 251-252.
- Cash, T. F. (1985). The impact of grooming style on the evaluation of women in management. In M. Solomon (Ed.), *The psychology of fashion* (pp. 343-355). Lexington, MA.: Lexington Press.
- Cogan, J. C., Bhalla, S. K., Sefa-Dedeh, A., & Rothblum, E. D. (1996). A comparison study of United States and African students on perceptions of obesity and thinn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 pp. 97-113.
- Diener, E., Suh, E. M.,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pp. 276-302.
- Elizabeth, J. A., Thomas, S. K., & Ian, J. D. (2004).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factor structure in a non-clinical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pp. 857 - 872.
- Fabian, L. J., & Thompson, J. K. (1989).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 in young fem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8(1), pp. 63-74.
- Fowler-Hermes, J. (2001). The beauty and the beast in the workplace: Appearance-based Discrimination Claims Under EEO Laws. *The Florida Bar Journal*, 75(4). p. 32.
- Franzoi, S. L., & Shields, S. A. (1984). The body esteem Scal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d sex differences in a college

-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2), pp. 173-178.
- Hamilton, K., & Waller, G. (1993). Media influences on body size estimation in anorexia and bulimia: An experimental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 pp. 837 - 840.
- Harre, R. (1991). *Physical Being*. Oxford: Basil Blackwell.
- Horney, K. (1939). *New Ways in Psychoanalysis*. Norton, 1939. pp. 90-95.
- İbrahim, H. G., Halil, E., & Osman, T. A. (2012). Value Preferences Predicting Narcissistic Personality Traits in Young Adults. *Educational Sciences: Theory & Practice*, 12(2), pp. 1281-1290.
- Kaiser, S.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 Kaufman (1998). The psychology of hair, Kaufman. *Margo Health(Time Inc. Hwalth)*, 12(5), p 86
- Lennon, S. J., & Rudd, N. A.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and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23, 93-117.
- Mendelson, M. J., Mendelson, B. K., & White, D. R. (2001). 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6(1), pp. 90-106.
- Mintz, L. B., & Betz, N. E. (1986). sex differences in the nature, realism and correlates of body image. *Sex Roles*, 15, pp. 185-195.
- Posavac, H. D., Posavac, S. S., & Posavac, E. J. (1998). Exposure to Media Images of Female Attractiveness and Concern with Body Weight Among Young Women, *Sex Roles*, 38(3/4), pp 187-201.
- Raskin, R.,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1), pp. 66–80.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pp. 379–391.
- Sarah, H. K. (2007). *Egos inflating over time: rising narcissism and its implications for self-construal, cognitive style, and behavi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 Stice, E., & Shaw, H. E. (2002). Role of body dissatisfaction in the onset and maintenance of eating pathology: A synthesis of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5), pp. 985–993.
- Tucci, S., & Peters, J. (2008). Media influences on body satisfaction in female students. *Psicothema*, 20(4). pp. 521–524.
- Verlin, B. H., Casey, J. S., & David, C. M. (2013). The Intermingling of Social and Evolutionary Psychology Influences on Hair Color Preferences. *Current Psychology*, 32(2), pp. 136–149.
- Welsh, A. C. (2009). A Biopsychosocial Model of Body Image in New Mothers. Digital Repository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 White, T. (2004). Scent, physical appearance and skin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26, p.170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pp. 590–597.
- Wink, P. (1995). Narcissism.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ity disordered*, New York: Wiley, pp. 146–172.
- Workman, J. E., & Johnson, K. K. (1991). The role of cosmetics in impression formation.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pp. 63–67.

<번역서>

- Baker, R., 이경준 역 (1984). *프로이드의 심리학*. 서울: 학문과 사상사.
- Holmes, J., 유원기 역 (2003). *나르시시즘*. 서울: 이제이북스.
- Kohut, H., 이재훈 역 (2006). *자기의 회복*.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Lasch, C. L., 최경도 역 (1989), *나르시시즘의 문화*, 서울: 문학과 지성.
- Reiman, T., 박지숙 역 (2009). *왜 그녀는 다리를 꼬았을까*. 서울: 21세기북스.
- Wilson, F., 김정인 역 (2007). *경영학에 여성은 없다*. 서울: 바람.
- Ziglar, Z., 이정빈 역 (1994). *정상에서 만나다*. 서울: 지성문화사

<Internet Site>

옥스퍼드 영어사전:

<http://www.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beauty?q=beauty>

검색일: 2014. 4.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http://www.kwdi.re.kr/search.kw>. 검색일: 2014.

4. 2.

SBS뉴미디어부 (2014). '성형 공화국'. 자료출처:

<http://www.sbs.co.kr/main.do>. 검색일: 2014. 4. 3.

TV 조선, '한국, OECD 국가 중'미혼자 비율 최고', 2013년 1월 14일자 기사.

자료출처: [www. news, tv. chosun. com](http://www.news.tv.chosun.com). 검색일: 2014. 3. 4.

Wikipedia: <http://www.wikipedia.org/>. 검색일: 2014. 3. 30.

ABSTRACT

The Effects of a Narcissistic Tendency and Body Esteem on Beauty Management and Hair Behavior

Kim, Jung - Sook

Departmen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Highly narcissistic people who tend to be self-centered and individualistic have strong desire for their beauty and want to show off their appearance constantly. Obsession with one's appearance may result in extreme results such as an excessive diet or plastic surgery addic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correlation between women's covert·overt narcissistic tendency, body esteem, beauty management, and hair behavior and figure out the effects of their demographic variables, personal characteristics, covert·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body esteem on beauty management and hair behavior. An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s to understand consumer needs and suggest directions for contemporaries' desirable beauty management and hair behavior through the research.

As a study method, the questionnaire method was employed. And the

measurement tools included the overt narcissistic tendency,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body esteem, beauty management, hair behavior, demographic variabl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measurement methods used were Likert's 5-point scale and the multiple-choice method.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women in their 20's to 60's residing in Seoul. The narcissistic tendency included two factors: the 'overt narcissism' and 'covert narcissism', and body esteem consisted of three subareas: 'physical function esteem', 'appearance esteem', 'weight satisfaction'. For beauty management, five factors, 'makeup expression', 'plastic surgery management', 'hair expression', 'skin management', and 'body management', were used, and hair behavior was composed of four factors, 'hair interpersonal orientation', 'hair individuality', 'hair conformity', and 'hair consistency'. Demographic variables were their age, marital status, academic career, job, and average monthly incom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about their current status regarding their appearance management cost, exercise, drinking, smoking, and diet.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2013 till January, 2014. The testees were total 641, and those in their 20's were 156, those in their 30's were 161, those in their 40's were 162, and those in their 50's to 60's were 162. And to analyze the data, the researcher employed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factor analysis,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written below:

First, regarding their covert·overt narcissistic tendency according to their marital status, unmarried women showed a higher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than married women. About their age, those in their 30's showed the highest covert tendency, and those in their 20's indicated the highest overt narcissistic tendency. The overt narcissistic tendency was higher when their academic career was more, appearance management cost was higher, or the women did exercise or drinking, or went on a diet.

Second, regarding their body esteem according to their occupation, those with a job showed higher physical function esteem than those without a job. About their academic career, women of university graduation or graduate school graduation indicated higher physical function esteem. In terms of their appearance esteem, those with more than three million won as their average monthly income showed high appearance esteem. Regarding exercise, those doing exercise showed higher physical function esteem, appearance esteem, and total body esteem. And those drinking indicated higher physical function esteem than those not drinking.

Third, regarding beau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ir ag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plastic surgery management, hair expression, and body management. Plastic surgery management was relatively higher in those in their 30's, and hair expression and body management were the highest in those in their 50's or older. Regarding beau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ir marital status, married women showed a higher level of recognition than unmarried women, and about beau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ir academic career, makeup expression was the most in women of university graduation. Women doing drinking, smoking, or exercise, or going on a diet indicated higher beauty management than

those not.

Fourth, about hair behavior according to their ag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hair conformity, hair consistency, and total hair behavior. About comparison on the averages of their total hair behavior, the women regarded the factor of hair interpersonal orientation to be the most important, and the next were hair consistency, hair conformity, and hair individuality in order. About exercise, women doing exercise showed a higher level of hair behavior than those not regarding hair individuality, hair conformity, and total hair behavior. And about their hair behavior in relation to drinking, those drinking indicated a higher level of hair interpersonal orientation, hair individuality, and total hair behavior than those not. About difference based on smoking, those smoking showed a higher level of hair individuality, hair conformity, and total hair behavior than those not.

Fif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variables exerting simultaneous effects in beauty management, makeup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exercise, drinking, appearance management cost,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appearance esteem. And plastic surgery management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marital status, smoking, appearance management cost,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appearance esteem (-), and those who were married or smoking indicated more plastic surgery management. Hair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age, appearance management cost, diet,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appearance esteem. Skin management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appearance management

cost, diet, 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appearance esteem. Body management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age, smoking, exercise, appearance management cost, diet,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overt narcissistic tendency, appearance esteem, and weight satisfaction (-).

Six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mining variables exerting simultaneous effects on hair behavior, hair interpersonal orienta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appearance esteem, and those with more of these variables tended to indicate more hair interpersonal orientation. Hair individuality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appearance management cost, age, academic career(-), smoking,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overt narcissistic tendency, appearance esteem, and weight satisfaction(-). Hair conformity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marital status, appearance management cost, exercise, and c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married women indicated higher hair conformity. And hair consistency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ir age, overt narcissistic tendency, and physical function esteem (-).

To sum up the above results, total beauty management was more improved when their appearance management cost was higher, the women were married, smoking, or going on a diet, and they showed their higher average monthly income, covert·overt narcissistic tendency, or body esteem. Regarding total hair behavior, hair behavior was higher when they were older or smoking or showed their higher appearance management cost, cover·tovert narcissistic tendency, or appearance esteem, or lower weight satisfaction.

With this, we can see that the narcissistic tendency and body esteem recognized as valuable factors in this rapidly changing society are the variables significantly influencing beauty management and hair behavior.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that deals with beauty management and hair behavior according to the narcissistic tendency and body esteem in contemporaries tending to be individualistic and ostentatious will be used as foundational material to establish effective marketing strategies in beauty industry. And it is also expected that more subdivided researches will be performed afterwards in order to reduce anxiety and depression that may be resulted from contemporaries' negative narcissistic tendency through beauty management and hair behavior.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박사학위 논문의 바탕이 될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헤어행동심리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지는 무기명으로 조사되며,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의 개별적으로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평소에 행동하던 바를 그대로 한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지도교수: 김경희, 연구자: 김정숙

I. 다음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장이 쌍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귀하에게 좀 더 동의하는 문장을 골라 **A** 혹은 **B**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각 항목마다 둘 중의 하나만 고르시고, 모든 항목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애적 성격검사지(NPI)		
1	A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B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A	나는 거의 모든 일을 과감하게 하는 편이다.
	B	나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람인 편이다.
3	A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나는 때때로 당황하게 된다.
	B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해 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A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겁나는 일이다.

자기애적 성격검사지(NPI)

	B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5	A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B	나는 내가 한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6	A	나는 여러 사람 속에 섞여 있는 것이 더 좋다.
	B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7	A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B	나는 성공하는 것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8	A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잘 나지도 못나지도 않았다.
	B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9	A	나는 내가 좋은 리더가 될지 자신이 없다.
	B	나 자신을 좋은 리더라고 생각한다.
10	A	나는 자기주장을 잘 한다.
	B	나는 내가 좀 더 자기주장을 잘하면 좋겠다.
11	A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B	나는 별로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12	A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나에게서 쉬운 일이다.
	B	나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 할 때 그것이 싫다.
13	A	나는 내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B	나는 대개 내가 받을 만한 대접을 받는다.
14	A	나는 내 몸매(또는 체격)를 과시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B	나는 내 몸매(또는 체격)를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15	A	나는 그저 적당히 행복하기를 원한다
	B	나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무언가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되고 싶다
16	A	나의 신체는 별 볼일 없다.
	B	나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17	A	나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B	나는 기회가 되면 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 보이는 경향이 있다.
18	A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자기애적 성격검사지(NPI)

	B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
19	A	나는 내가 당연히 얻어야 하는 것을 모두 얻을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B	나는 그럴 만한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 만족한다.
20	A	칭찬을 들으면 좀 난처하다.
	B	나는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한다.
21	A	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B	나는 권력 그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다.
22	A	나는 새로운 유행과 스타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B	나는 새로운 유행과 스타일을 주도하기를 좋아한다.
23	A	나는 거울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B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별 관심이 없다.
24	A	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B	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
25	A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 수 있다.
	B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6	A	권위를 갖는 것이 나에게서 큰 의미가 없다.
	B	사람들은 항상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같다.
27	A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B	내가 리더이든 아니든 나에게 별 상관이 없다.
28	A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B	나는 내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29	A	나는 타고난 리더이다.
	B	리더쉽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개발되는 것이다.
30	A	나는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내 모습에 주목하지 않으면 속이 상한다.
	B	나는 밖에 나갔을 때 군중 속에 묻혀 눈에 띄지 않아도 상관없다.
31	A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B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32	A	나는 다른 여느 사람과 비슷하다.
	B	나는 비범한 사람이다.

Ⅱ. 다음 문항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어보신 후에,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 (0)를 해 주십시오. 모든 문항들에 반드시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내현적 자기애(CBS)척도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	1	2	3	4	5
2	비판을 받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3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가끔 남의 비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 들인다.	1	2	3	4	5
5	가족들 중에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6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1	2	3	4	5
7	나에게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보인다	1	2	3	4	5
8	때때로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내 자신을 주장하지 못 할 때가 있다.	1	2	3	4	5
9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인생은 남들보다 불행한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1	2	3	4	5
10	내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11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1	2	3	4	5
13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1	2	3	4	5
14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1	2	3	4	5
15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 항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앉는 편이다	1	2	3	4	5
16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내현적 자기애(CBS)척도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직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1	2	3	4	5
18	나는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면, 두고두고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편이다.	1	2	3	4	5
19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활기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20	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친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1	2	3	4	5
21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종종 매우 외롭고 불편하다.	1	2	3	4	5
22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낀다	1	2	3	4	5
23	나는 혼자서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24	요 몇일 동안 나는 계속 슬프고 우울했는데 쉽게 이런 기분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1	2	3	4	5
25	누군가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힘이든다	1	2	3	4	5
26	나는 일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1	2	3	4	5
27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5

Ⅲ. 다음은 신체존중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어보신 후에,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 (0)를 해 주십시오. 모든 문항들에 반드시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남들에 비해 건강한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3	나는 몸이 약한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남들에 비해 예쁜/멋있는 외모를 가졌다.	1	2	3	4	5
5	내 몸은 보통사람만큼은 건강하다.	1	2	3	4	5
6	나는 나의 외모가 자랑스럽다.	1	2	3	4	5
7	다른 사람들은 나를 건강하다고 한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예쁘다/멋있다	1	2	3	4	5
9	내 몸에는 아픈 곳이 많다.	1	2	3	4	5
10	나의 외모 중에서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다	1	2	3	4	5
11	나는 쉽게 질병에 걸리는 타입이다.	1	2	3	4	5
12	나는 내 외모에 대해 부끄럽다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13	나의 몸은 건강하다	1	2	3	4	5
14	나는 내 몸무게를 생각하면 우울하다	1	2	3	4	5
15	나는 몸이 허약한 것 같아 창피하다.	1	2	3	4	5
16	나는 내 키에 지금의 몸무게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체력에 자신있다.	1	2	3	4	5
18	나는 뚱뚱한 것 같아(마른 것같아) 창피하다.	1	2	3	4	5

IV. 다음은 뷰티관여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어보신 후에,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0)를 해주십시오. 모든 문항들에 반드시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피부 관리를 위해 기능성 화장품(수분, 주름, 미백, 아이크림 등)을 즐겨 바른다.	1	2	3	4	5
2	외출시 메이크업은 못해도 머리는 꼭 만진다	1	2	3	4	5
3	나는 눈썹을 자주 정리하거나 눈썹문신을 하고 있다.	1	2	3	4	5
4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저 칼로리 식품을 골라 먹는다.	1	2	3	4	5
5	나는 더 나은 외모를 위해 성형수술도 생각해 본다.	1	2	3	4	5
6	피부 관리를 위해 각질제거나 팩 제품을 주기적으로 사용한다.	1	2	3	4	5
7	왁스, 무스, 헤어 젤을 이용해서 헤어스타일을 연출한다.	1	2	3	4	5
8	출근이나 외출 전에 항상 피부화장(메이크업 베이스,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등)을 한다.	1	2	3	4	5
9	나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이 찌는 식품은 안 먹는다.	1	2	3	4	5
10	나는 지방 흡입 수술을 받거나 받고 싶다.	1	2	3	4	5
11	피부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마사지를 한다.	1	2	3	4	5
12	나는 머리염색, 모발관리 등으로 머리모양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편이다.	1	2	3	4	5
13	아이세도, 볼터치 등 다양한 색조화장을 즐겨 한다.	1	2	3	4	5
14	나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동(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을 한다.	1	2	3	4	5
15	나는 눈밑의 주름, 처짐의 제거 수술을 받거나 받고 싶다.	1	2	3	4	5
16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 세안제품을 선택한다.	1	2	3	4	5
17	평상시 헤어 드라이기나 매직기로 헤어스타일을 연출한다	1	2	3	4	5
18	최신 유행 패턴이나 색상으로 화장을 한다.	1	2	3	4	5
19	몸매를 가꾸기 위해 체형 보정용 속옷(브래지어, 코르셋)을 입고 다닌다.	1	2	3	4	5
20	나는 레이저시술로 기미, 주근깨를 없애거나 없애고 싶다.	1	2	3	4	5
21	피부 관리를 위해 피부과 또는 피부 관리실을 이용한다.	1	2	3	4	5
22	헤어 스타일을 변화 시킬 때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고려한다	1	2	3	4	5
23	유행하는 색조화장품을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편이다.	1	2	3	4	5
24	나는 나 자신의 몸무게를 자주 재어본다.	1	2	3	4	5
25	나는 몸이나 얼굴의 점을 빼고 싶다.	1	2	3	4	5

V . 다음은 **헤어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들을 잘 읽어보신 후에, 자신이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0)를 해주십시오. 모든 문항들에 반드시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는 것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TV에 출연하는 연예인의 헤어스타일과 유사한 스타일을 하고자 미용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1	2	3	4	5
3	나는 의복과 맞추어 헤어스타일 등의 조화에 신경 쓰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	나는 나만의 강렬한 컬러나 대담한 헤어스타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5	내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고수한다.	1	2	3	4	5
6	나는 나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1	2	3	4	5
7	나는 나의 헤어스타일의 변화 시 연예인의 스타일 자료나 사진 등을 활용한다.	1	2	3	4	5
8	나는 상황에 맞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조화롭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눈에 띄는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10	나는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남이 날 평가할 때 내 헤어스타일을 중시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모임에 가서 내 헤어스타일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불안해진다	1	2	3	4	5
13	나는 나 자신이 가장 예쁘게 보일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1	2	3	4	5
14	나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스타일을 하면 다른 스타일로 바꾸는 편이다.	1	2	3	4	5
15	유행에 따르기 보다 늘 하던 대로 머리를 한다.	1	2	3	4	5
16	사람들과 사귀는 데 품위 있는 헤어스타일이 도움이 된다.	1	2	3	4	5
17	내가 속한 집단의 헤어스타일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8	나의 헤어스타일이 좋지 못할 때 외출하기가 꺼려 진다.	1	2	3	4	5
19	헤어스타일을 연출 할 때 남을 의식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과감한 헤어스타일이 좋다.	1	2	3	4	5
20	나는 한 미용실만을 선택해서 가는 편이다.	1	2	3	4	5
21	주위사람의 반응을 고려해 과감한 헤어스타일을 하지 못한다.	1	2	3	4	5
22	나는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23	나는 헤어스타일 연출시 디자인이나 색상이 예쁘면 가격과 상관없다.	1	2	3	4	5
24	나의 헤어스타일은 나의 개성을 돋보이게 한다.	1	2	3	4	5
25	나는 한 헤어디자이너에게 머리를 하는 편이다.	1	2	3	4	5

